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003. 2호

기획 여성주의 노동 <왜 여성의 노동을 이야기하는가>

특집 반전과 여성 <여성주의로 전장에 반대하다>

왜 박용호는 공화당을 준비하고 유진은 연예활동을 중단하는가?
여성학 미디어학회

이걸의 우리 모두 일해야 할 반성록 <여성의
참을만큼 참았어. 교수님도 이제 그만>



CONTENTS

01 기획 | 여성의 노동

여성노동 둘러보기 • 2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당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 4

작은 밥그릇에 담긴 여성에게 치사한 세상 • 6

- 선풍 내맡기지 않는, 그러나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그녀의 밥그릇
- 나의 직장우월 섹슈얼리티 경연기
- 돈쓰기

10 특집 | 반전과 여성

여성?女權! • 12

평화의 공명을 꿈꾸다 • 14

잡다한 상상들 • 16

Feminists speak against war! • 17

- 반전 담론 안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 - 여성주의적 반전을 위하여
- Whose Reality Counts?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반전을 위하여
- '우리를 국민으로 모양하지 말라' - 탈냉전시대의 '국적' 개념과 반전 시민권

전쟁에 대하여 말하기 그리고 행동하기 • 30

전쟁에 반대하는 여/聲 反戰영화제 • 3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혹은 아직도 말할 수 없다 • 32



34 여성학 서평 | "침묵은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 군사주의를 여성의 입으로 말하기

36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 왜 박용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유진은 연예활동을 중단하는가?

38 여성사 | 화장,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40 남성이 바라본 세상 | 남자 벗어던지기

42 이갈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 참을 만큼 참았어, 교수님도 이제 그만

intro

왜, 여성의 노동을 이야기 하는가

여성은 '인제나'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남성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한 말투?이 보이도록 소매를 걷어부치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남청 노동자'가 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남성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성들은 '시집이나'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어머니의 가사 노동은 무보수이며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왜 간호사나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직업이 여성에게나 '어울리는' 직업으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왜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빈야이던 일까요? 또 왜 여성은 남성보다 우선적으로 '해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무수한 물음들을 안고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 하나 명확하게 '이것은 이래서 그래'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일해 왔고,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노동이 폄하되고, 가세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성 노동에 관한 이야기 좀 이번 호에서 다음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노동 둘러보기'에서는 여성 노동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측면을 다루게 합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하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떨까요? 국가에서 '고령보호법'을 실시해서 노동시장에서 '모성'이 '보호' 받고 있다는데,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도 '보호' 받고 있을까요? 여가가 늘었다고 하는 줄여보면 주 5일제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리유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집중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살핌 노동은요? 혹시 '보살피는 능력은 여성이려니'라고 고난 거 아니? 하면서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당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에서는 실제로는 여성에게 강요되는 '노동'이지만 노동으로 생각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학 팔라불는 옷을 입고 웃으며 춤추는 나레이터 모델, 너무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안녕하십니까'가 '안녕하시며'로 불리는 주자 안내 요원을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여성의 본능 일까요?

다음에는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본 선배들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들어갔던 선배,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선배,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나온 것인 줄을 알면 돈 쓰기도 너무 어렵다는 선배의 이야기까지. 어려운 끝에 겨우 일을 얻어도 여성들에게 박박 하지만 한 사회 현실을 깊이 보고 준비하고 일어나주세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활발

오늘날은 여성도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여성에게 졸업 후 결혼이 아닌 취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떠나서 통계 수치만 보아도 노동 시장에 있어서 여성의 진출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5년 36%에서 1980년 42.8%로 증가하였고, 1987년 47.0%를 거쳐 2002년에는 49.7%에 이른다. 2003년 3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9,241,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2,644,000명 중 40.8%를 차지한다.(통계청)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더라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5세부터 44세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여성 노동이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의 가족주기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이탈, 다시 재진입하는 것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었는가?

이러한 통계 수치만을 보면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적으로는 여성도 일을 하고 노동자가 되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지위는 떨어지고 있다.

2001년 전체 노동자의 52.3%가 비정규직이며, 이 중 70.2%가 여성이다.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볼 때 2002년 9월 현재 여성 취업자의 34.8%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다. 90~97년 동안 늘어난 임금 노동자 가운데 남성은 64.4%가 정규직이었으나, 여성은 39.3%만 정규직이었다. 성별 임금 차이에 있어서 남성을 100으로 할 경우 여성의 임금은 1975년 42.2에서 2001년 64.3, 노동시간은 1980년 103.3에서 2001년 97이다.

노동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자본의 위기 극복 전략으로 '유연한 노동력'으로 보이는 여성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대대적으로 흡수되었다.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유연한 고용 상황 속에서 노동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때나 구조조정 시기에 여성들은 1순위로 해고되고, 여전히 결혼과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취업·승진·배치에서 차별받고, 직장 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취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공식부문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통계자료(노동부, 2000)를 보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여성의 42.2% (미혼:25.7%, 유배우:47.8%)가 가사와 육아 부담을 꼽고 있다.

출처

- (주) 노무현, 신자유주의 권력과 여성정책의 특수관계(장우연, 송강현주)
- (여성인 권)와 금융 세계화 비탄(박미경, 이소영)
- (2002년 Mayday 기획단 여월) 자료집(여월)
- 통계청 <http://www.stat.go.kr>

여성노동
둘러보기

이렇듯 많은 여성들이 가구적 요인과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공식부문에 진입하는 것이 남성에 비하여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여성은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집중되게 된다.

사회서비스의 축소와 여성의 지위 하락

교육, 보육시설, 의료, 노인부양 등의 공적 서비스가 사적연금, 사적 의료보험, 사적 병원, 사립학교, 사적 보육시설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시장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개별 가계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자녀의 양육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 노동-가사 노동을 비롯한-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더욱 하락하게 된다.

여성노동관련법 개악

여성노동법이 2000년에 '모성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되었다. 모성보호법에는 임신부의 야근 및 휴일 근로 제한, 산전 휴가제, 가사휴가 인정, 보육시설 설치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혜택은 여성노동자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40% 미만에게만 한정된다. 특히 모성보호의 사회적 분담화를 이룬다는 목표로 오히려 '어머니'가 아닌 대다수 취약한 여성들에게는 최소한의 보호규정마저 철폐되었다.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여성의 야근, 휴일, 연장근로 규제 완화는 여성노동에 대한 부당한 평가, 임신과 출산, 모성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 등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주요인을 무시한 것이다. 결국 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성의 노동 유연화는 더욱 심화되고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주5일제 실시와 여성노동권

주5일제가 단순히 주간 근무일수를 5일로 줄이고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5일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주5일제 논의 과정에서 나온 10인 이상 사업장까지의 '단계별 실시안'은 여성노동자의 70%가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초기 시행 대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손해본은 중소 영세사업장으로 전가되고, 결과적으로 작은 사업장의 노동 강도는 더욱 심화된다. 결국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노동 지위는 더욱 후퇴하게 된다. 그리고 연·월차 휴가 축소와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는 여성 주기와 이에 대한 권리를 무

시하고, 결과적으로 실질 임금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탄력적 근무 시간제의 실시는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야간근로 제한이 폐지된 대다수 여성들의 건강권을 더욱 위협하게 된다. 주5일제는 본래의 목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안정, 노동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 유연화 전략의 하나로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생리휴가 유급화

여성에게 생리는 임의적 선택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신체 현상이다.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서 이를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는 생리휴가의 실제 사용률이 낮음을 근거로 생리휴가 무급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률이 낮은 것은 직장에서의 여성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지 이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은 아니다. 건강휴가나 대안적 휴가를 통해서 생리휴가의 대체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이 서구처럼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리휴가 무급화는 여성의 건강권의 후퇴를 가져오고 노동 유연화를 강화시킬 뿐이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아닌 여성은 보호받지 못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된다. 여성의 이러한 지위는 직장에서의 고용주가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국가 정책이나 노조 활동에서 여성노동자의 지위 보장을 위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여성노동자는 여성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어머니로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여성에게 보장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지위일 뿐이다. 여성노동자는 가정과 직장의 이중부담으로부터 벗어 나지 못하게 된다.

여성을 재생산 역량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하지만, 그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만큼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여성은 재생산 역할에서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노동시장에서도 남성의 보조적 위치로 부각될 뿐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권은 가족임금제한 이름으로 손쉽게 박탈당한다. 여성은 여성 노동자로서 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는 일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요즘 남자들은 돈 잘 버는 여자를 좋아해서' 일 등 신분감이 되려고 그러는 아들도 있지만 말이다.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이 땅의 노동자가 된 여성들. 그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가든 그녀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잊을 겨를이 없을 것이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여성스러움'을 강요하거나 혹은 '여성스럽지 않음'에 주의를 주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여성은 여전히 사무실의 꽃이요, 친절한 분위기를 살리는 존재이다. 아니면, '여자는 원래 꼼꼼하고 섬세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니까' 그런 손 많이 가고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일을 주로 하게 되든지.

뿐만 아니라, 아예 직업 자체가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요구되는 것도 많다. 상대방을 보살피고 챙겨주고, 섹시함을 드러내고, 친절과 미소를 늘 갖추어야 하는 직업들이 있는데,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이런 '요구'가 아닐지도 모른다. 모름지기 여자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미덕이니까.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나레이터 모델, 백화점 점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런 직업은 여성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왜? 여성은 모성을 타고났으며, 섹시함이 장점이 될 수 있으며, 친절과 미소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그 일의 본질적인 업무보다도 여성이기 때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당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성들은 과연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어딜 가나
귀여운 여동생, 사랑스런 아내,
희생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따라야 하는가?



문에 덩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내가 보살펴줄게."-보살핌의 노동

이런 일에 늘 따라 다니는 말이 '모성'이다. 사람들은 모성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착각하며 이런 일은 천상 여자 직업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 예가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이다. 간호사는 환자 옆에서 진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동시에,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살펴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사도 교과목을 가르침과 동시에 학생들을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 일기도 봐주어야 하고, 싸우는 아이들 화해도 시켜야 하며, 우는 아이 달래주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여자 교사를 더 선호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엄마'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주어지는 업무만 해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덩으로 주어지는 노동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보살핌'의 노동은 때때로 여성이기에 당연시되며 보너스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성은 원래 사람이든 동물이든 보살펴주는 것을 타고나서 보살핌은 '노동'이 아니라는 논리다.

"나 sexy 해요?"-섹슈얼리티의 노동

이와는 달리, 여성의 성적인 매력이 요구되는 일도 있다. 단적인 예가 나레이터 모델인데, 이들을 고용하는 쪽은 제품을 홍보하는 원래의 목적보다도 요란함, 화려함, 그리고 무엇보다 '섹시함'에 더 목숨을 건다. 짙은 화장, 짧은 치마, 하이힐, 달라붙는 옷.. 과감할수록 성공한다. 한번쯤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나레이터 모델들은 어떤 장소를 광고하고 있든,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 있든, 단지 '섹시한 그녀'로만 존재할 뿐이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나레이터 모델,
백화점 점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런
직업은 여성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왜? 여성은 모성을 타고났으며, 섹시함이 장점이
될 수 있으며, 친절과 미소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그 일의 본질적인
업무보다도 여성이기 때문에 덩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들이 성희롱에 무방비 상
태로 노출됨은 말할 것도 없다.

"친절과 미소로 모시겠습니다."-감정 노동

항상 친절하고 항상 웃어야 한다. 'smile=money'는 패스트푸드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부치면서, 그리고 비행기에 앉아서도 친절하고 서비스를 요구한다. 물론, 켈그린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일을 하는 여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업무 외에도 이른바 감정 노동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손님에게도 친절하게, 하루종일 앉아있지 못해서 다리가 뚱뚱 부어도 언제나 밝고 상냥하게, 탑승객들이 자신의 외모로 품평회를 벌여도, 무거운 기내식 나르느라 힘이 부쳐도 입가에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과연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어딜 가나 귀여운 여동생, 사랑스런 아내, 희생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따라야 하는가?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그런 역할을 벗어던져보자.

그러면 이런 말을 듣게 될테니.
"여자가 너무 뻔뻔해."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선뜻 내밀어지지 않는, 그러나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그녀의 밥그릇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취업 준비생인 나에게 이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은 없는 듯하다. 남보다는 조금 길었던 백양로의 생활을 접고서 취업의 길목에 서 있는 지금 나는, 한푼이라도 아끼고, 벌면서 공부를 하고자 모 영어학원에서 새벽 알바를 하는 중이다. 영어는 과거에도 나의 앞길을 방해한 적이 있었고, 현재 나의 취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두 시간의 영어회화 수업과 교환되는 세 시간 동안의 학원 알바는 나에게 유용한 밥그릇이기도 하다. 작은 밥그릇.

그러나 이 작은 밥그릇에 얹힌 몇 가지 이야기들은, 여성인 내가 앞으로 구할 밥그릇의 장래를 보여주는 전조인 듯하다. 이것은 내 마음에,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도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자그마한 경험이 여성인 나와 당신에게 (앞으로의) 밥그릇 싸움에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우울한 심경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지만 이렇게 들려내려 한다.

내가 처음 이 알바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알바 광고를 보고 학원에 문의했을 때, 그들은 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학원 광고 게시대를 옮기는 일, 학원 앞을 청소하는 일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취업의 문전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선호된다는 널리 알려진 성차별적인 관행은 이러한 작은 밥그릇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알바에 필요한 일들은 여성이 특별히 해낼 수 없는 종류의 일도 아닌 듯 보였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사실 이 일을 지금 매일같이 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나로서는, 이들이 말하는 '힘의 필요'가 작업장에서 남성 선호를 합리화시키고, 여성을 효과적으로 배제시키는 성차별적인 사고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일들은 남성들만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상한 종류의 신념에 빠져서 남성의 힘을 과장하는 것이 아닐지...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특별한 괴력의 소유자인 슈퍼맨과 동일시하고 싶은 건가? ...)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나는 한달

을 조건으로 계약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나는 여성에게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들도 경험하게 되면, 계속 나를 고용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달의 알바는 다른 남자 알바생의 등장으로 인해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물론 이 알바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종의 임시직이기 때문에, 다른 알바생으로 손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남자였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안다. 나는 알바를 뺏긴 셈이었다. 나 이후에, 1개월씩 두 명의 남자 알바생이 새벽 알바를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들은 알바를 계속하지 않았다. 사실, 이 알바는 일이 힘들다기보다 새벽 여섯시까지 학원에 와야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뜻 하려 들지 않는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학원에서는 남자 알바생을 구하고 싶어했지만, 새벽이라는 조건의 이 알바를 감당하려는 남학생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여자였지만, 그들에게도 뾰족한 대안은 없었기 때문에 알바의 기회를 다시 내게 준 것이고, 지금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다시 시작한지 2개월째.

나의 작은 밥그릇에 담긴 이러한 사연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준다.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기회는 여성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으며, 실령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작업장내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손쉽게 그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위치에 여성이 놓여있다는 것을....

이 작은 밥그릇 속에 얹혀있는 여성에게 치사한 현실들이 비록 암울하긴 하지만, 나는 여성인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여성인 당신들로부터 위안을 얻으려한다. 서글프지만 싸워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by 세

작은 밥그릇에 담긴 여성에게 치사한 세상

- 선뜻 내밀어지지 않는, 그러나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그녀의 밥그릇 세
- 돈 쓰기 세
- 나의 직장우울 시화생활 경험기 세



돈 쓰기

가끔 멍하니 백화점 구경을 할 때가 있다. 며칠 전에도 혼자 백화점에 갔다. 가서 예쁜 코트들도 보고, 근사한 스타킹도 보고, 립스틱도 이것저것 바라보고...

마음에 드는 코트를 하나 봤는데, 뭐 백화점에서 파는 겨울 코트가 다 그렇지만, 30만 원짜리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참 그런 가격표가 대수롭지 않은 것도 같지만, 새삼스럽게 비싸다고 호들갑 떨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다. 30만 원짜리 코트만 비싼 게 아니다. 십 몇 만 원짜리 바지나 니트도 너무 비싸고, 신발도... 뭐든지 다.

내가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된다면 30만 원짜리 코트를 흔쾌히 살 수 있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나 아니다. 30만 원이면 다른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거나, 밥을 몇 끼를 먹을 수 있거나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런 돈이 어떤 돈인지 생각하면 어쨌든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이다. 옷에 대해서 유난히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여러 장의 만원짜리를 쓰는 건 죄책감을 일으킨다.

지난 9월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한 시간에 4,500원씩 받았다. 그래서 열이틀동안 아침 여덟 시부터 저녁 9, 10 시까지 일해서 총 60만원정도를 벌었다. 전단지지를 뿌리는 아르바이트는, 한 시간에 5,000원씩이었다. 그래서 내가 가을에 산 25,000원짜리 남방은, 내가 길에 서서 다섯 시간동안 전단지지를 사람들 손에 쥐어주는 노동의 대가였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손이 당연히 오그라든다.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 아르바이트는 한 시간에 만 원 이상 들어오는 고임금이다. (한 달에 30만원을 받고 8번 간다고 하면 열여섯 시간에 30만원이니깐,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천다고 해도 그 정도.) 나는 그 돈을 받으면서 때로는 과외하는 시간보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해서 학생과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저 앉아서 공부하는 겸사겸사 놀아주고, 어떤 날은 내 멋에 취해서 주저리주저리 설교도 하고.... 어쨌든 학생을 책상 앞에 앉혀놓는다. 으레 한 달이 지나면 다음 한 달을 부탁받으며 받는 그 돈. 알뜰한 수표 몇 장이기도 하고, 만 원짜리 수십 장이 두툼하게 들어있기도 한다. 도대체 이 돈이 뭘까. 나는 정해진 시간에 가서 학생들과 앉아있는 대가로 그 돈을 받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할까.

지난 여름방학 때 딱 한 달만 과외를 한 적이 있다. 학생과 막 청이 들고 나도 슬슬 수학이 익숙해질 때 즈음, 한 달 만에 더 이상 과외를 안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 과외를 하겠다고 전화를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를 받으시겠냐고 하면서 부담스럽다고 말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직장에서 숨차게 돌아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에 음료와 과일과 빵 같은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올려주시던 학생의 어머니. 마지막 날에는 갑자기 렌 라복이를 부짐하게 해서 주었다.

그 날엔 아무 생각 없이 얻어먹었지만, 그 다음에 전화가 걸려 왔을 때에서야 그 라복이에 학생 어머니의 미안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예전에 한 학생은,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빚을 지고,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온 식구 생활비 개 오백 교육비 이 학생 교육비를 다 대고 또 그 아버지가 진 빚까지 갚아나갔다. 아버지는 집에서 그야말로 '놀고', 어머니는 직장도 갔다가 집에 오면 저녁 하고, 빨래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사노동을 하고, 과외하는 날엔 간식도 넣어주시고... 한 달이 지나면 월급 주시는데, 조금 늦어지면 또 왜 그렇게 미안해하시는지. 월급 25만원을 들고 나오는 날은 기분이 좋기도, 또 이정도 받고 한 달 동안 일해야 하나 하는 답답한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이 어떤 돈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다.

몇 년 전인가, 우리 학교에서 청소 하시는 아주머니들 월급이 법정 최저 임금도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굶은일인데도 돈도 정말 조금 버는데 그 돈으로 식구들 생활비에 자식들 교육비까지 다 대려면 뼈뚫한 정도가 아니라고, 내가 과외를 해서 받는 돈을 떠올려보면, 그 분들은 나 같은 과외교사(?)를 고용하기는커녕 조금 비싼 음식도 먹어볼 수 없다. 내가 받는 돈은 내가 과외를 해주는 대가이기도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도 과외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필사적으로 시간과 땀을 들여 만들어낸 돈이다. 그래서 도저히, 그 용치를 덤뻑 어디엔가 쓸 수가 없다.

부모님이 주시는 돈도 마찬가지.

아빠가 벌어오는 돈은 내가 버는 돈과 자릿수가 다르지만, 그 안에 수많은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시간이 들어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아빠 월급 안에는 아빠가 회사에서 노동한 가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 회사에 다니는 다른 직원들의 노동과, 국내/해외 어떤 공장들의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 만들어낸 가치가 다 들어있다는 기분이 든다. 아빠의 회사도 다른 공장에 일을 맡길 때면 어떻게든지 돈을 적게 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쌓인 이윤 중 일부는 아빠의 월급에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값싼 가치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가치와, 그 노동자들의 재생산을 위해 들어간 아마도 대부분이 여성들이 했을 노동의 가치일 거고.

그러니 내 용돈도, 아빠의 월급에 담긴 수많은 다른 사람의 노동의 가치(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노동한 만큼 다 받지 못해서 생긴 잉여분)와 그 돈을 불리고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은행과 금융사를 다니고 쓴 물건들을 찾으러 다닌, 그리고 아빠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재생산에) 투입된 엄마의 노동과 시간이 담겨있다.

그래서, 백수인 내가 필수품이 아닌 것에 -비록 내가 모은 내 돈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덤뻑 써버리지 못하겠

는 것이다. 때로는, 멋진 물건을 가지고, 즐거워지고 싶고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사고도 싶지만, 아무도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참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면..... 또 이 시간 누군가는 이만큼의 돈이 무척 급하고, 이렇게 말고 더 유용하고 필수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진다.

도대체 내게 돈은 무엇일까?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걸까? **by. 김혜**

- 위의 글은 2002년 11월 24일
언니네(www.unninel) 자기만의 방의
'혼란 일으키고 웃기'에 쓰였던 글입니다.

by. 김혜



나의 좌충우돌 사회생활 경험기

나는 지금 4학년이다. 하지만 이 4학년이 나에게 처음 찾아오는 일은 아니다. 3년 전에 나는 소위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었다. 그리고, 4학년이었다. 적성에 맞았던 맞지 않았던 나는 공학사 학위를 받으며 졸업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취업의 좁은 문을 뚫어야만 했다. 그랬다. 나는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던 4학년이었다. 우선 나의 학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나쁜 학점이 취업준비생에게, 그것도 여성 취업준비생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그때는 잘 느끼지 못했었다. 하지만 어떤 날은 하루에 두 장, 또 어떤 날은 세 장...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수없이 절망하였다. 그때 나는 몰랐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사회는 남자들보다 100점 이상의 높은 토익점수와 좋은 학점, 그리고 심지어 단정함(?) 외모까지 요구한다는 사실을..... 심지어 채용공고에는 분명히 남/여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막상 서류전형에서 걸러져 면접을 보러간 어떤 남자선배의 얘기론 여성이 한명도 없었다거나, 때론 한명이 있었다는 얘기도 간간히 듣게 되었다.

그렇게 50장 이상의 이력서를 여기저기 쓴 끝에 나는 선배가 사장님으로 계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다. 그 회사 개발팀에 여직원은 같이 입사한 친구와 내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사장님이 선배라는 친밀감(?) 때문에 사장님을 가끔씩 챙겨드렸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식사하셨어요?' 하고 묻기도 하고 외근을 나갔다가 오시면 인사도 하고 말이다. 그런데 그런 친절이 어쩌면 너무나(?) 반가웠나보다. 처음엔 안 그러셨는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많이 취하신 사장님이 내 볼에 은근슬쩍 키스를 하시는 것이었다. 내 친구를 꼭 껴안기도 하셨다. 나는 소름이 끼쳤지만 어려운 회사 형편과, 사장님이 선배라는 체면 때문에 속으로 그 문제를 꼭 삼켜버렸다. 솔직히 성희롱으로 고소하고픈 심정도 있었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있었겠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가장 큰 이유를 달고 나는 그 회사를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사회라는 큰 파도에 휩쓸린다'는 일이 정말 보통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상처투성이의 나는 새로운 진로를 찾기 시작했다.

공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원래부터 문과적성이었던 나는 몇 개월간의 고민과 노력 끝에 두 번째 직장으로 잡지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조그마한 잡지사였는데, 여기저기 나 혼자였고 나머지 여직원들은 경리직에 근무하는 분들만 계셨다. 문제는 처음 취직할 때부터 있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신상카드 비슷한 걸 쓰라고 하셨다. 그것을 하나하나 기입해 나가다 보니 그 조항에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묻는 조항이 있는 거였다. 그것도 여자한테만 해당하는.....!! 그 때까지 나는 비흡연자였다. 그래서 안 피운다고 쓰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장님께 따졌더니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금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으셨다. 그리고 잡지사인 관계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데 여기저기 담배를 뿜뿜 피우고 있으면 보기가 안 좋다는 이유를 슬그머니 대셨다. 남자가 담배 피우는 건 괜찮고, 여자가 피우면 보기가 안 좋다니 참 어불성설이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 나로서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꼭 참고 그 회사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공부하고 싶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또다시 4학년을 맞이하는 내가 되어 그 때의 4학년을 돌이켜 볼 때, 그리고 잠깐의 사회생활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조바심이 많이 난다. 이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말로 여직원들만 유니폼을 입는 회사들이 있다는 사실도(이건 단박 친구의 얘긴데... 그녀는 약사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 여기저기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성희롱이 다른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정말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여성의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그런 것들을 마냥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쉽게 사회생활을 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즘의 나의 생각 중 하나다. 우리 여성들의 쉬운 포기는 후배들의 새로운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직접 부딪쳐서 바꿔나가야 한다. 많이많이 준비하자.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자. 그리고 용감하게 세상에 던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이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by. 서리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

특 집_ 반 전 과 여 성

누군가는, 영문없는 불법 침략이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참전국의 국민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이기에,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합니다.
모든 여성이 제 아들을 전장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성이 폭력으로 찾아버린 세상을 구해낼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성이 평화와 동일시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약한 타인을 폭력으로 밟고 억누르며 그 위에 올라서서 깃발을 꽂는 것을 강함이라 여기고
그러한 정복을 인류와 문명의 발전이라 일컫는 아란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승자에게만 살아남을 권리를 부여하는 극단적 폭력과, '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전쟁' 속에서
승자는 언제나 '남성'이며 여성의 존재는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공포와 억압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무기도 소지하지 않은 이들,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 언제나 '약자'로 규정되어 버리는 이들, 여/성
자신들의 일그러진 정복욕을 승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 여기며
전쟁을 바라고 전쟁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욕망을 높여가는 때
여성들은 수많은 폭력 속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전쟁' 속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다.
여성들은 들리지 않았습다.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다.
참각자들은 자신들이 벌이는 전쟁이
'무고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희생을 막고 그들에게 평화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폭력에서 비롯하며, 폭력을 필요로 하며, 폭력을 정당화시킬 뿐입니다.
폭력은 어떤 여성들도, 어떤 어린이들도, 그 어떤 사람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말해야 합니다.
모든 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라는 것을
정당한 전쟁 혹은 명분 있는 전쟁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현재의 전쟁 담론에 대한 비판 - 담론에서의 '여성 배제', '어머니', '여성=평화'

女 性 ? 女 聲 !

지금, 여성이 배제된 '반전'에 대해 돌아본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다. 수많은 이들이 전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반전을 외치는 집회가 이곳저곳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갔음에도 미국의 폭력은 그칠 줄은 몰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던 공간과 자신이 속해있던 공동체가 한꺼번에 파괴되어 버리는 참혹한 광경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엄연히 존재하는 피해자는 잊혀지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진 전쟁이 '승리'로 돌아간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떠벌리며 역겨운 미소를 온 얼굴 가득 뽐내며 머금은 침략자만이 남아 있다. 전쟁이라는 야만의 역사가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 對 이라크전 역시 힘센 것이 정의일 뿐이라는 끔찍한 교훈을 남기며 서서히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반전'을 말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지겹게 또 전쟁이야?' 하고 투덜거리는 누군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나 지난 한 달여의 시간동안 불어닥친 반전의 물결 속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여성'의 이야기를 들춰낸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말해야 한다. 또한 말할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에서 누구보다 폭력에 먼저 노출되는 존재가 여성임이 명백한 현실을 바라볼 때, 전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마저 여성의 존재가 배제된다는 것은 분명 없어져야 할 사실이기에,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지점이기에.

집회의 자리에서 '여성'은 없었다.

전쟁 발발 이후 많은 집회가 열렸다. 평화문에서, 국회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파병 반대!"와 "전쟁 반대!"를 외쳐댔으며,

나 역시 구호를 외쳐대고 피켓을 흔들었던 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공간은 나에게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 무장한 채 서 있는 전경들이 언제 휘두를 지 모르는 물리적 폭력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전경들이 언제 휘두를 지 모르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은 그 자리가 평화를 갈구하는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파병을 결정한 '정부'에 대항해 돌돌 뭉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언제나 강함은 '당연히' 남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강대국=남성/약소국=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이미지를 너무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있지 않은가-이는 남/북을 너무도 당연한 듯이 남/여로 치환시키고 '약한 북한'을 (상대적으로) 강한 남한이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싸우고 일할 수 있는 국민, 즉 강인한 남성이었기에 국가는 역동적인 남성의 이미지로 그려져 왔으며, 이런 논리 하에서 여성은 '국민'인 남성의 든든한 방어막 속에 숨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이자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된다. 이렇듯 남성을 전제로 하여 구성된 '국가 담론' 하에서 여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태어난 이상 '대한민국 국민'임이 확실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국민'으로 정체화시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나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반전을 외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반미를 위한 '반전'인가

반전을 외치는 구호 다음에 반미를 외치는 구호가 당연한 듯이 따라붙는다는 점 역시 그 공간에 대한 나의 불편함을 심화시

키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일으킨 전쟁이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집회의 주체가 되어 반전을 외쳤을까' 하는 발칙한 상상까지 잠시 해 볼 정도였다. 물론, 집회에 함께 했던 이들의 반전에 대한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일으킨 전쟁이라 해도 반전을 외치는 이들은 당연히 존재했을 것이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똑같이 전쟁 반대를 주장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또는 믿고 싶다. 그러나 반전과 반미를 동일시 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시도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을 대하는 입장과 전쟁에 대한 목소리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고, 석유를 위한 전쟁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환경주의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할 수도 있고,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할 수도 있다. '반전=반미'라는 성급한 일반화는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미국에 반대하는 한국민들'로 범주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점에서 발화되는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 반미여야 가능한 반전 앞에서 '반미 이전의 반전'을 외치는 목소리는 허공으로 울려 퍼지고 마는 것이다. 반전이라는 당위 앞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까? '미국이 일으켰기 때문에' 혹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군사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전을 외치기 이전에, '전쟁이기 때문에' 반전을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성들의 외침'이 아닌 '어머니들의 외침'

이번 전쟁에서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반전을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다친 아이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어머니의 사진과 '내 아들을 전쟁터로 내몰 수 없다'며 파병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발언이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이라크戰 발발 바로 전날이었던 3월 19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반전평화 여성행동' 명의로 주최된 '이라크 침공과 한국 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외침'이라는 반전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 집회 자리에서는 반전의 의미를 담았다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이란 검은 옷을 입고 하얀 '무언가'-어쩌나 예상은 1%도 비껴가지 않는지, 역시나 그것은 그 '어머니'들의 아이였다-를 양팔에 안은 세 여인이 '내 아이가 죽어가



요, 내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고 읊부짚는 것이었다. 너무나 애절하게 '나의 아이를 위해 전쟁을 막아달라'고 외치는 세 어머니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꽤 눈에 띄었다. 그러나 현재 어머니의 위치에 놓여 있지 않으며 앞으로 어머니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은 나에게 이러한 '어머니' 담론 역시 공감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은 반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인가? 모든 여성들과 어머니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을 반전 담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성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여성이라면 당연히 신성한 모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신화는 무섭기까지 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 하에서도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훈계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어머니인 여성은 자신의安危를 살피지도 못한다면 말인가? 전쟁 하에서 아이들을 잃고 살아남은 어머니들이 평생 안고 산다는 죄의식 역시 이러한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소수자의 시각에서 반전을 말한다.

누군가는 전쟁이 이제 다 끝났다고 한다. "인제 TV에서 전쟁 뉴스 보면 지겨워"라고 말하는 이들도 종종 눈에 띈다. 그러나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이 막을 내렸다고 해서 인간들의 삶이 금세 평온을 되찾고 평화로 가득 차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라고 한탄할 정도로 이미 충분히 폭력적이지 않은가. 전쟁이라는 상황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과 폭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내가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강한 이들'에 의해 억눌림당하는 '약한 이들'이

실재하는 현실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POWER=옳은 것이라는 전쟁의 논리를 정당화시킬 뿐이다. 어쩌면 지금은 반전의 명분을 찾고 전쟁이 주는 국익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로 묶여져 있던 다양한 반전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 보고 여성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시선으로 반전을 외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른다.



평화의 공명을 꿈꾸다

내가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 - 전쟁이 일어나던 날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가 발표되고 나서, 나를 사로잡다시피 지배했던 감정이 무엇인지에 관해 나는 아직도 잘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감정이 어떤 색깔의 것이었는지는 둘째치고라도, 왜 내가 그 밤, 그런 정제 모를 감정에 휩싸였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그 때를 상상하며 몸을 떨고 있는지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한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나에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심각하게 닥쳐온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말 그대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음은, 나를 지켜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오바'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든다. 내일이면 전쟁이 터지게 될 것이라던 그 밤을 나는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끔찍하리만큼 생생하게.

전쟁이 터지기 전 날, 난 내가 속해 있던 학회의 세미나에 참석 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세미나의 주제는 전쟁에 관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전쟁과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쟁이라는 귀결을 불러오게 되는가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학회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몇 번이고 튀어나오는 '전쟁'이라는 말 때문에 나는 무서워지고 무서워져서 겁에 질린 채로 결국 그 앞에서 울고야 말았다. 나는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전쟁을 온 몸으로 무서워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어디에서 왜 왔는지도 모를 두려움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일까 라는 문제와는 약간 다르게, '어쩌면 좋을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몇몇의 경우에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나는 이번 전쟁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쟁을 반대하는 나의 한 친구는 전쟁을 반대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이름의 작은 공연

을 진행해 보는 일을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 왔다. 술이나 마시고 잔뜩 취해 버려 이 공포의 순간으로부터 빠져나갈 궁리나 하고 있던 나에게 그 제안은 정말로 따뜻하고 고마운 제안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고통의 기억이 되던 간에 이 엄청난 공포의 상황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보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마주하지 않을 수 없기도 했지만, 더욱 의지적으로 취하지 않고 기억했다가 커다란 방치에 맞아 토끼가 납작하게 되어 버리는 만화를 보며 웃고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전쟁장면을 게임 영상 보듯 들여다보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잊지 말고 말해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굳혔다.

'내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무려 8주 동안이나 진행된 그 릴레이 반전콘서트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사람들은, 명분과 담론에 하나하나의 사람과 사람이 자칫 묻혀버리고 마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아 온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에 매우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그 어떤 방식의 폭력에도 진지하게 그러나 평화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나에게서는 매주 토요일의 그 자리가 위로이자 희망이었다. 관객들은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 온 몇몇의 평화 운동가들과 대학로를 지나는 거리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함께 음악을 듣고, '내가 전쟁을 반대하는' 당연하고도 분명한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전쟁에 반대해야만 하는 당위에 관한 것도 아니었고, 전쟁에 반대하라는 계몽도 아니었으며,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일인가에 관한 도덕적 진술도 아니었다.

'최종병기 그녀'라는 만화책을 보고 전쟁의 잔혹성을 알았다는 사람, 영화의 전쟁장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을 상상하기

싫다는 사람, 학교 폭력의 기억을 떠올리며 전쟁을 반대한다는 사람, 자신의 아이가 살아야 할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며 전쟁을 반대한다는 사람. 그렇게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과 사람은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눈길로 쓰다듬으며, 함께 평화를 상상하였다.

토요일이 아직 너무 멀리 있던 어느 날 난 또 다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갑갑해 하고 있다가 무엇이랴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위에 참가했었다. 줄을 맞춰 달리면서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계속해서 입으로 '전쟁반대'를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공간이었다. 나는 전쟁을 반대하지만 시위현장을 벗어나고 싶었다. 나보다 키가 훨씬 큰 남자들이 줄을 맞춰 달리면서 외쳐대는 "전쟁"과 "파병"이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주 토요일 조용하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따뜻하게 전쟁을 반대하는 대학로의 콘서트 장을 다시 찾았을 때, 난 한 번 더 눈물을 흘렸다. 그 소근소근하는 사람과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에, 그 부드럽지만 유약하지 않은 우리들의 평화에 나는 그만 한 번 더 울고 말았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했고, 어떤 이들은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전쟁은 끝났는가에 관한 물음에 성급한 대답을 해도 좋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이외의 수많은 폭력에 이미 둔감해져 버린 사람들. 자신의 신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폭력에 대해 '스쳐가기'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사실을 알고 있다고 묻고 싶다. 우리가 얼마나 폭력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한 가운데 당신이 서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는지를 작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묻고 싶다.

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고 반전 콘서트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

았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는 아니었다. 실제로 나의 금주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 기간동안 지구 저편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었을 그 엄청난 폭력과 어마어마한 공포를 매일 기억하면서 나는 그렇게 나의 일상에 이라크 전쟁을 금주의 형태로 들여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기억 속에 그 끔찍함을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는 의지이자 각오이기도 했다.

나에게는 다행히도 친구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온 몸과 마음의 후달림, 그 며칠의 기억을 나는 아마 평생의 상처로 안아야 할 것이다. 기어이 전쟁이 터지던 날, 손이 떨려 겁을 놓치고, 가야할 반대 방향의 지하철 타고 했던 것들을 나는 결코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다시 전쟁을 생각한다. 이미 끝났다는 이라크 전쟁과 여전히 진행 중인 일상의 전쟁을 나는 지금 다시 생각한다. 그러나 혼자서 조용히 전쟁을 상상하기란 나에게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던 중에, 전쟁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글과 노래와 시와 무용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쓸쓸하게 생명을 잃고 말았다. 그 안타까움에 나는 지금 다시 나의 평화를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조용하고 감동적인 평화의 올림에, 곁에 있는 다른 어떤 누구도 감히 전쟁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평화의 공명.

지금 당장의 평화가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워 할 수 있는 평화의 '기억'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누구나 그 언젠가의 평화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면서, 미래의 평화를 간절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있기를, 지금의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의 작은 소망을 속으로 끝없이 되뇌어 본다.



NO WAR



① 사람들과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온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갖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을 싣고 타겠다,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었던 것들을 모조리 사겠다, 애인과 하루를 같이 보내겠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겠다,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있겠다 등등...

물론 이 상황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단 하루 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쇼핑, 놀이공원, 애인, 이런 상황은 모두 접어두고, 나는 아마도 집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공포에 떨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단 하루 밖에 남지 않은 바깥 세상은 이미 모든 규범이 사라진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규범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해볼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한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도난과 폭력, 그리고 강간이 난무하여도, 어떠한 규제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이 단 하루뿐인 상황에서 이미 나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회 규범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기에 폭력과 강간의 가능성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 그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말이다.

② 전쟁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꿈쩍

한 상황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바로 그 것이다. 전쟁의 현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평범한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 모든 일상이 정지된 상태이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느끼게 될 그 엄청난 공포, 혹은 공습 경보도 없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미사일 폭격과 누구를 향해 올리는지 모르는 총성... 내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들, 이것이 전쟁의 모습이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아군과 적군의 구분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미 모든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상이 파괴되고, 모든 규범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온갖 죽음과 폭력, 강간 등 결코 '일상적' 이지 않은 경험들과 그것으로부터의 공포, 절망, 분노, 단지 그것뿐이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세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믿기 어려울 만큼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현장, 바로 전쟁이다.



여성주의 反戰 토론회를 준비하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장기전으로 향해가고, 세계 곳곳에서는 반전의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독재정권축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시작된 '이라크의 자유' 작전의 이면에는 그저 살아남을 권리조차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이름으로, 종교인의 이름으로 각자 입장과 이유는 다를지라도 이라크전에 반대해야 함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어떻게' 반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주의자로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진보' 대통령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번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국익'과 한반도 안보를 위해 이라크전에 파병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며, '진보'와 '국익'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국가 안에 갇혀버려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담론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국제 관계 전문가, 군사 전문가가 총출동한 뉴스들 속에서, 구경거리처럼 되어 버린 이라크 전쟁 보도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여성주의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국제관계를 국가간 이해 관계로, 약육강식의 논리로 설명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 전쟁을 반대함에 있어서도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우리는 여성주의자로서 전쟁을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쟁에 관련한 담론들, 특히 반전 담론들을 정리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이 전쟁과 관련한 국제 관계의 논리들을 재구성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냉전시대에 국익과 시민권 개념을 어떻게 다시 써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

*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여성주의 反戰 토론회 일지문을 실었습니다.



■ 2003년 한국의 반전 담론

반전 담론 안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 - 여성주의자, 반전을 말하기 위하여

이한지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

내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이다. 전쟁이 언제라도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생각, 그 안에 있으면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 특히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지도 모르고 내 삶 전체가 갑자기 찢겨 나갈지도 모른다는 때문에 나는 전쟁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특히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러한 공포를 증폭시킨다.

우리는 이미 전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다. 그것은 비단 적국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국가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을 가진 '조국'의 남성들에 의해서도 자행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폭력은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전쟁 상황 안에서는 더욱 당연하고 빈번해진다는 점에서, 전쟁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전쟁을 객관화하기?

하지만 TV를 통해 보는 전쟁은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다. 이제 전쟁은 비디오 게임, 혹은 스포츠중계처럼 이야기된다.

국제 관계 전문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국제 전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내가 느끼던 감정들은 너무도 유치하고 순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쟁은 이제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구경거리, 혹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가식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연세대 커뮤니티의 한 의명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남긴 이번 전쟁의 '관전포인트'에 대한 글을 보고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다. 가슴이 떨리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나쁜이었을까,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평온한 일상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듯 이야기되고, 그 와중에 또 죽어가고, 어떤 이들은 전쟁을 그렇게 보는 것이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전쟁이 일찍 끝난다면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지속됨으로써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과연 그 논리라는 것 안에 인간이 존재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어떤 '인도주의자'들은 전쟁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잊지 말자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이라크 민중들에게 가해지는 후세인 정권의 폭력을 막을 수 있다면 자신은 그것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전쟁들을 둘러싸고 종종 나오는 이야기.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라크 민중의 고통을 아느냐고 말할 때 나는 할말을 잃곤 한다.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그곳에 미사일을 쏘고 시가지에 진격하고 해방을 시켜주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해방되어야 할 민중과 죽어도 되는 민중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

또한 전쟁이 소수자, 여성에 대한 폭력이 노골화되는 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이 말하는 '인도주의'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과연 인간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미국내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전쟁지지율을 보이는 집단이 중년의 남부백인남성이라는 것,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집단이 흑인여성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들의 '인도주의'의 허구를 본다. 왜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가, 왜 소수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가. 이 질문들은 그 여론조사 결과와 그리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반전 시위에서 Fucking USA를 만나다

전쟁이 일어나던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 반전시위에 갔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쟁반대를 외치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반전 시위에서 Fucking USA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 미국이 벌인 전쟁이기 때문에 반

전은 반미와 직결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너무도 당연하게 연결되는 '반전=반미'의 고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이런 것이다.

왜 우리는 반전을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구도에서 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이 전쟁은 단지 미국 대 이라크의 전쟁일 뿐인 걸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단지 반미 구호를 외치기에 바빠 우리는 이 전쟁을 사고할 틈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쟁이 일어나고 반전 여론과 이에 따른 반미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인지, 여중생범대위는 미국바로알기 10종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는故윤금씨씨의 사체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 여성의 몸은 국가와 민족의 소유이고, 유린당한 여성의 몸이 훼손당한 국가의 은유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는 '선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국민일 수 없음을 본다. 국가 대 국가의 구도 안에서 여성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다.

여성주의자로서 전쟁에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전쟁과 관련된 담론들 속에서 전쟁 중 여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보일 수 없다. 넘

쳐나는 말들 속에서도 국가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차이와 차별들은 은폐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이 반전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구호는 절박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단지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날, 광화문 시위에서, 어머니로서 여성은 당연히 평화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들으며 너무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여성은 왜 어머니이어야만 할까.

나는 여성성을 평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해묵은 고정관념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반전 담론 안에서 여성의 자리를 더 좁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여성에게는, 특히 그것이 어머니라는 감상적인(감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호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정치적인 담론도, 평화를 위한 투쟁과 공적인 제안도 부적절한 것으로만 보인다.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조용히 그대, 그래도 평화를 사랑하는 게 나은 거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본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치적 힘을 가진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면서 반전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일까.

물끄러미 바라볼 수는 없다. 전쟁은 언

제든 내게 다가올 수 있는 무엇이다. '명분 없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말을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옳고 어떤 면에서는 그르다. 어떤 명분으로도 학살은 합리화될 수 없다. 어떤 명분도 전쟁으로 인한 공포에 자신의 삶을 적당 잡힌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구호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우리는 '명분 없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구호대신 전쟁 그 자체에 반대한다고 외쳐야 한다. 그럼에도 그 구호에 올랐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은 정당화 절차가 없이도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반대 구호는 더욱 틀렸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전쟁에 반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반전 담론에 여성주의자로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어쩌면 너무도 순진할 수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전쟁을 둘러싼 담론들 안에서 아직 덜 여문 여성주의자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른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풀어가기로 한 것이다. 여성주의적으로 반전을 이야기하기 위한 언어들을 함께 만들고,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구성 하는 국제관계의 논리

Whose Reality Counts?

이현옥 (University of Sussex Gender and Development 석사)

영국의 학자 로버트 챔버스는 1997년 일련의 개발정책과 프로그램, 그 접근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누구의 현실이 고려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이 질문은 비단 개발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관계와 전쟁에 대한 일반적 이해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우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국가를 행위자로 보고 각각의 행위자가 국익을 위해 이합집산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이라크전을 둘러싸고도 '국익'은 사람들의 화두가 되었는데, 여기서 잠시 이러한 시각이 전제로 삼고 있는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이 그 전제부터 성별화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첫째는 정치적 행위자가 남성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정치의 개념이 배타적으로 공격영역 혹은 정부활동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이 마키아벨리식의 남의 의지를

억압하여 요구에 응하게 하는 좁은 개념이라는 것이다(Peterson and Runyan, 1993: 72). 여기서 특히 제한된 권력의 개념은 중요한데, 이에 따르면 권력을 갖기 위해 혹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남의 자원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에 따르면, 국가간의 관계는 법치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무정부적 상태이며, 군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경을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Peterson and Runyan, 1993: 83).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실들을 가리고 있다.

첫째는 외부의 위협요소나 방어에 대한 결정을 누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국가가 기본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행위자로서의 국가, 즉 정부의 의사결정은 해당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판단하고 수행할 때, 그 판단과 결정은 원래 거기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만들어져야 한다. 외교·군사·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국민들의 의견은 그다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차후에 결과만을 알게 될 뿐이다.

요즘 무력갈등의 양상을 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익을 다루는 두 국가간의 무력대치라는 전쟁의 의미보다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혹은 테러 혹은 다른 비국가적인 무력과 국가(혹은 수퍼파워)의 대치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미국이 '테러범들을 엄단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독재에 시달려온 이라크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좀더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나는 테러와 독재를 지지하지 않지만, 평화를 위한 무력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그 무력이 '명분을 가진' 국가에 의한 것이건, 여타 다른 세력에 의한 것이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사회구조 안에 폭력이 뿌리깊이 박히게 되고, 그 이후에도 끔찍한 공포가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Luckham, 2001).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많은 경우 이분법은 상황을 더욱 명료하고 당위적으로 보이게 한다. 전쟁/평화, 공격적인/수동적인, 보호하는 자/보호 받는 자, 가해자/피해자, 전선/가정전선(battlefront/homefront), 상응하는 두 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분리된 것으로 인식된다. 다소 진부한 감이 있지만 이러한 이분법을 여성에게 대입시켜보면 여성은 평화를 사랑하고, 수동적이며, 보호의 대상이지만 종종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전선에서는 가정전선에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전쟁을 지원한다. 남성은 전쟁을 수행하는 자이며 공격적이고, 보호하는 자이며, 대대로 가해자이고, 전선에서 전쟁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국가를 위해 군인들은 파병되고, 남겨진 여자들은 순식간에 보호를 받는 위치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우고 있으므로, 당연히 남아있는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와 국가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파병된 군인들은 작전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어쩔 수 없이' 그곳 여성들을 강간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대부분의 피난민 여성들이 이들뿐만 아

니라, 같은 나라의 남자, 피난민 수용소 관리 등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동안, 보호하는 자와 가해자는 하나가 된다.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여성들을 그들을 돌보고, 조용히 다시 원래 자신의 위치인 집으로 돌아간다. 전쟁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부조리들은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덮여진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는 돌아왔다. 이 시나리오는 2차 대전 상황에 보다 적합하지만, 전쟁이라는 장치가 갖는 성별화된 효과를 몇 가지 지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

이는 전쟁이 조장하는 급박한 상황의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효과의 핵심에는 단결과 배제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민족주의의 부활, 애국심 강조되는 상황에서 젠더문제는 없는 것처럼 치부되거나 극단적인 행태를 띠고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전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우리는 눈을 감는다. 그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두가 단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평'도 자제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국내의 여성은 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운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 및 각국의 정부가 보인 반

응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정부는 개인의 전화통화, 이메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애국법(USA Patriot Act)을 통과시켰으며, 각 국 정부는 앞 다투어 불안정국을 만들었다. 국경수비가 강화되었고, 국내의 외국인들은 박해받았다. 각종 차별들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 '우리'와 '그들'을 분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자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 '우리'는 누구일까?

다른 하나는 전장과 일상의 장의 성별에 따른 분리다. 전쟁과 일상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일상을 담보로 한다. 남자가 전쟁에 나간 동안 여자는 가정의 생계와 국가 경제를 책임진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남자만이 아니다. 전쟁과 연루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쟁에 동원되는 것이다. 요즘처럼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모호한 때가 없었던 것 같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 군수 및 보안 산업을 유지하면서 평화를 위한 대비한다. 외부의 위협요소에 대한 불안감을 끊임없이 조장되며, 이는 막대한 군사지출에 대한 근거가 된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쓰인 세계 군사지출 비용은 미화 21조 달러(1987년 기준)로 이는 지구상의 53억 인구가

1997년 ITDG Publishing에서 출판된 영국의 개발학자 Robert Chambers의 책 제목



1990년에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와 같다(Sivard in Peterson and Runyan, 1993: 84). 1985년 미국에서 단 5시간의 국방비가 1600여 개의 성폭력 상담소와 쉼터의 지원비와 맞먹는다는 사실은 이 두 사안에 대한 비중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전쟁이 끝난 후 - 우리는 평화를 되찾았는가?

종종 평화는 전쟁의 반의어로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시기로 이해되기도 한다.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전쟁만 없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해 희생될 무고한 사람들도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라크 사람도 아니고 미국사

람도 아닌, 전쟁에 별 관계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내가 굳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전쟁이 가져온 폭력과 뿌리 깊은 구조적 불평등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이성애주의, 성별화된 민족주의 등이 끊임없이 군사주의와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법을 양산시키는 매개가 되어 왔다(Peterson and Runyan, 1993: 153). 그리고 이 전쟁은 다시 이러한 분리의 이념들을 강화시킨다. 전쟁과 무력이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평화도 그 실체가 있어야 한다. 평화는 구조적인 불평등과 폭력을 넘어서는 데서 온다. 아마도 그것이 전쟁이 끝나도 우리가 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참고문헌
조순경, 2001,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후 2001년 겨울호
Peterson, V. Spoke and Runyan, Anne Sisson, 1993, Global Gender Issues, Westview Press: Oxford
Luckham, Robin, 2001, Breaking the Cycle of Violence (www.kidslac.uk)
Bacchetta, Paola et al, 2001, 'Transnational Feminist Practices Against War', (www.action-tank.org/tp/tem.html)
Abeysekera, Sunila, 2003, 'A Women's Human Rights Perspective on War and Conflict', (www.whrm.org)
Burch, Charlotte, 2002, 'Whose Security?', The Nation, the September 23, 2002 issue (www.thenation.com)
Enloe, Cynthia, 'Masculinity as Foreign Policy Issue' (www.afsc.org/peacework) 게재년도 미상 2003.4.7. 방문
Suskind, Vital, 'Talking with Friends and Family About Iraq' (www.madre.org/taking/aboutraq.asp) 7/2003.4.7. 방문



■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반전을 말하기

타리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왜 여성은 전쟁을 반대하는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은 전쟁의 '병'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여성은 전쟁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숨기고 있는 전쟁의 본질과 진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강자가 약자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온 방식으로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그것을 경험해왔다. 전쟁은 단지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그것은 총탄이 떨어지는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폭력이 전쟁과 흡사하다는 점은, 단지 전쟁이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조장되고 가능한 사회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전쟁은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을 더욱 강화한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들은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였으나 이들은 그 동안 전쟁에 대해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군대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제적인 정세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이유로, 국가적인 중대사를 논할 자격이 없는 이등시민으로 언제나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그러나 여성이 역사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발언하는 반전의 목소리는 오히려 근본적인 전쟁의 진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모든 전쟁은 명분이 없다", "인권을 위한 전쟁은 없다"라고, 가깝게는 아프간 전쟁이 이것을 보여주었다. 탈레반도 북부동맹과 미군도 아프간여성을 보호하지 않았고, 원조를 위해 아프간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의한 성폭력과 성매매는 아프간여성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었다.

무기구매로 인해 '국가경제'는 좋아졌지만 국방비가 인상되면 사회적인 약자에게 돌아가면 복지예산은 축소되고, 전쟁 상황에 따라 경제가 나빠지면 여성이 우선해고되며, 테러방지법안은 유색

인종의 인권을 위협하며 전반적인 인권을 후퇴시킨다. 이러한 현실은 직접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당했던 아프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민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테러보복전쟁, 대량살상 무기 해체를 위한 전쟁, 인권을 위한 전쟁들은 전 세계를 전쟁준비사회로 몰아간다. 전쟁은 준비만으로, 가능성만으로 인권의 상황을 후퇴시킨다. 살상을 전제로 하는 군대는 표면적으로 비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보호는 차별이라는 함정을 가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국민을 이동화하고, 군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을 '어머니'와 '창녀'로 이분화한다.

국가의 '온명'을 위해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그 전쟁을 위한 군대에 쓸모 있는 젊은 남자와 국가에 아들을 바치는 어머니를 제외하면, 전쟁(준비)사회에서는 장애인과 성 소수자 등은 쓸모 없는 존재가 된다.

어떻게 반전을 말할 것인가?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반전을 말하

1) www.kwae.org/kwae@freemove.com

2) 성별화된 지배정권에 대한 인식

"성별화된 폭력은 단지 전쟁시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일탈의 형태가 아니다. 그것의 근원은 평화시에도 만들어진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쟁 특별법정 자료집, 미간행)

"여성성을 평화하고 남성성을 권력화하고 가지는 것으로 부여하는 남성성의 우월의식은 전쟁의 과정과 승리를 묘사하는 은유법에서도 표출된다. 지난 걸프전쟁 당시, 공격은 강간으로 표현되고 the rape of Kuwait, 이슬람교 신의 땅을 하고 있는 서양 후세인의 몰래된 양면이 뒤로 미시되어 놓일 듯한 그림은 침략의 굴욕성을 강간(buck you!)의 이미지로 대신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약자의 속성은 여성성과 동일시되던 사 가지할수 있는 것이다." (김영희, 2002년 SAFE 서울 국제회의 자료집, 미간행)



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국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프간과 이라크를 폭격하면서 '그 나라 시민의 인권을 위한다'고 선전하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만큼, '한국군은 한국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폭력과 성매매가 용인되고 조장되는 사회에 살면서 '이라크의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다'는 전쟁을 돕겠다고 파병을 하는 한국의 국가권력이 나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전쟁위기를 반대하는 것은 내가 '단군의 자식'이라는 부계혈통으로 이어진 한 민족자식자 아니다.

성조기를 찢고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다. 성조기와 태극기에 대한 선악이분법은 (국가가 상징하는) 국가를 강대국-약소국의 구도에 묶어둠으로써 한 국가를 그 위치에 고정시킨다. 태극기가 선하다는 말은 최소한 한국의 남성주제에게나 가능한 말이다. 그러나 태극기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그것을 흔드는 주체들은 왜 성조기는 부시 행정부의 것이고, 왜 태극기는 자신의

것인지 설명해야만 한다. 그들은 조남준의 <악몽>이나 <태극기를 찢으며>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 신효순심미선씨 대규모 추모집회, 반미집회, 반전집회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조기를 찢고, 태극기를 흔들고 "Fucking USA"가 노래로 흘러나오는 공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악으로 규정하는 그들은 미국 영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며 동시에 한국 영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들의 존재도 지워버린다. 사이버에서 셀 수 없이 보았던 '미국여자를 강간해서 복수하자'는 주장은 적의 여자를 침탈함으로써 적군을 무력화시키는 전쟁터의 전술과 놀라우리만큼 흡사하다.

그들은 왜 분노하며, 왜 반전을 말하는 것인가? 미국의 패권주의에 분노하고, 불평등한 SOFA에 분노하여 반미집회와 반전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기위해 고 윤금씨 주검사진을 '이용'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는 왜 고 윤금씨씨가 그렇게

성별화 된 방식으로 죽음을 당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한 분노는 가해자가 미군이 아닐 경우 힘을 쓰지 못하며, 일상적인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한다.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한 사람의 죽음을 국가간 불평등의 문제로 내거는 것은, 지금까지 그녀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도록 만드는 데 방조하고 공모해왔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인권과 평화

반전의 담론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전쟁의 진실을, 그 동안 은폐되어왔던 진실을 말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 무고하게 죽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자신이 내는 세금을 무기프로그램에 기반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쓰지 말라고 주장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참혹한 주검사진이 남들에 의해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대를 거부할 권리와 그것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물론 이런 권리는 아직 나의 바램이다.)

언제나 국가간 권력의 문제, 세계적 경제의 문제에서 주변부로 밀려나있던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을 확보해나가는 것은 추상적이기만 한 평화에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전쟁이 없는 상황이 평화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일상적으로 전쟁과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면 '평화' 시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 반전과 평화를 말하는 이유를 아이를 낳아기르는 생물학적인 경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경험을 어머니로 단일화하고 어머니가 아닌 여성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여성의 반전 목소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승인하고 권장하는 '여성'의 존재에 대해 거부하고, 남성지배와 그것의 극단적 형태인 전쟁의 경험에서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전쟁위기를 반대하며 안전보장에 대해 말하기

미군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듯 북한의 핵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주민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북한 정권의 통제를 동시에 비판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가 정보를 얻고 파악하

여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인권을 위한 전쟁, 독재자를 축출하기 위한 전쟁은 무고한 목숨을 빼앗으며 기아와 인신매매, 성폭력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몰고갈 것이다. 핵은 북한정부의 국가안보 수단일 수 있지만 북한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고, 한사람의 목숨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고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북한 주민 스스로가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나갈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임

어제 뉴스는 바그다드 '함락' 소식을 전하면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렸다. 그러나 바그다드 함락이 이라크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 탱크가 시내에 즐비한 군정동안 그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뉴스에서는 후세인을 반대하고 미군을 환영하는 인파를 보도했는데 그것은 물론 독재의 억압의 반작용이었겠지만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약탈과 무법상태도 다 큰 시민들에게는 위협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무리 속에서는 여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은 어디에 있으며, 그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알 수 없었다.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평등해보이는 대항공간이 생각났다. WAW가 대학여성주의 자들과 함께 대학을 돌면서 반전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유인물을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남녀커플로 지나가는 여성에게 유인물을 주면 그것은 거의 매번 남성에게 의해 낚아 채어졌다. (여성은 남성에게 팔짱을 끼고 가느라 남성보다 뒤에 서 걸게되며 자유로운 손은 한 손밖에 없었다.) 그러한 남성의 몸짓은 여성간의 연대를 차단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접하고 판단하는 것을 막으며, 그녀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읽혔다. 남성의 지배는 상징적인 국가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성이 주도하는 것을 권하고 강제하는 이성애적 연애 각본 안에도 녹아들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남성이 주도하고 남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쟁의 논리를 깨닫는 것과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일상적 통제와 차별을 거부하는 것은 더 좋은 주인을 모셔서 전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변의 힘으로 예측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신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SOFA불평등을 미군이 대동령의 아내를 강간해도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으로 설명한 안희, 한겨레21 시사SF 2002.12.12(목) 제438호

4. 미사령관 부인과 미영부인을 성노예 성으로 했단소문 - 심미선씨의 죽음에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 http://www.ddan2.com/ddan2lib/movie/interview/interview_07_02.asp



김현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탈냉전시대의 국가와 전쟁

'우리를 국민으로 호명하지 말라' - 탈냉전시대의 '국익' 개념과 반전 시민권

* 이 글은 4월 30일에 <여성주의 反戰 토론회>에서 발표된 초고를 수정한 것입니다.

들어가며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 나와 함께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의 커뮤니티에는 '오늘의 퀴즈'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왔다.

* 다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China 1945-48	Cambodia 1969-70
Korea 1950-53	Guatemala 1967-69
China 1950-53	Grenada 1983
Guatemala 1954	Libya 1986
Indonesia 1968	El Salvador 1980s
Cuba 1959-60	Nicaragua 1980s
Guatemala 1960	Panama 1989
Congo 1964	Iraq 1991-99
Peru 1985	Sudan 1998
Laos 1964-73	Afghanistan 1998
Vietnam 1961-73	Yugoslavia 1999

이 퀴즈에 대한 답은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미국이 폭탄을 투하했던 나라와 기간이다. 우리는 이제 이 목록에 이라크를 추가하게 되었고, 시리아를, 이란을, 북한을 상상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나는 이라크 전쟁 직전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 현장에서 '급진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감격해하고 흥분했었다. 동성애를 상징하는 레인보우 깃발과 여성 단체들의 반전, 평화 조각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의 굵직한 선언문들, 민

족운동단체들의 '격렬한' 외침들과 대학생들의 건강한 에너지들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반전 평화 시위는, 허망하게도, 내게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허위 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글로벌 시민 연대를 현실화시켜냈던 전 세계적인 '반전 평화' 시위도 미국의 부시 정권이 무시하지 못할 거대한 '힘'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승리라는 단순한 결론으로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 이상 이라크에 대한 뉴스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두 달간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이라크 상황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의 여성주의적 삶의 태도에 어떤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21세기의 반전 운동- '팍스아메리카나'의 탈식민적 해체

21세기는 20세기를 장악했던 미국의 정치, 경제적, 문화적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다양한 움직임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9.11과 같이 폭력을 동반한 저항적 테러리즘부터 수개월간 지속된 한국의 촛불 시위 등과 같은 평화적 시위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미국 패권

주의 지속과 강력한 재건을 위해 부시 정부가 대 이라크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우리는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반전 시민 운동의 동시적 출현을 목격했다. 이제까지 국가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논의되어왔던 시민 운동이나 시민권의 개념이 단일 국가를 넘어 전지구적인 개념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국면을 경험했다. 반전 운동의 전 세계적 동시적 발현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주체로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을 현실화시켜냈다.

이러한 반전 운동은 전보적이거나 평화를 지향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운동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정부 차원에서 반전을 공표하고, 미국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새로운 흐름이었다. 각국의 정부도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타자에 대한 침공이나 끊임없는 살상을 통해 패권을 확보해나간다는 20세기적 질서와는 절연을 해야만 한다는 자성력을 갖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과 가장 이해관계를 같이해야한다고 요구받던 나프타(NAFTA) 가입 국가들인 멕시코, 캐나다 등도 미국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냉전 체제의 국익 논리'로 이러한 새로운 문명사적 흐름이 단절되고 있다.

나는 반전 시민 운동과 각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반대가, 이제까지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개념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던 미국의 문화적 헤게모니에서 벗어나려는 '탈식민적 해체'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과 패권주의의 가공할 만한 힘을 또 한번 목격했지만, 미국이 표상해왔던 문화적 질서들의 근거 없음에 대해, 살육의 남성적 욕망들에 대해,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국민'으로 호명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국의 현실은 국민과 국익, 국민적 합의란 이름 하에 우리의 비판적 '성찰성'을 끊임없이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이라크 전쟁이 가져다준 '이익'은?

'국익'을 위해 '감상적 휴머니즘'을 포기하라?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쟁은 반대하지만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위해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적 합의'를 대표하는 UN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국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국을 지지했다. '국익' 논리 앞에 국제적 합의는 의미를 잃었다. 반전 시위에는 노동자, 학자, 청소년, 여성, 동성애자, 대학생, 직장인등 한국 사

Feminists speak against war!

회 내에서 '동질적' 정체성으로 묶어낼 수 없는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했고, 그 열기는 국익 논의의 허구성을 비판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국회 본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시민 운동 단체는 파병안에 동의한 국회 의원들에 대하여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고, 국회의원들은 낙선 운동이 '불법'이라며 주장하며, 내년 선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한국인들은 '국익'으로 대표되는 현실적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득을 받으며, '국민'으로 호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일터와 살터로서 국가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국익'이라는 이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익들'을 상상하도록 유도된다. 노무현 정부와 냉전 체제와 군사주의 문화 내에서 기독교를 유지해왔던 정치인들은 국익을 얻어내었을 때, 그에 따라 각각의 국민에게 돌아갈 구체적인 이익을 냉정하게 따져보라며, 반전 운동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세계 질서는 냉혹하고, 우리는 제 2의 IMF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반전 운동을 벌여왔던, 적어도 미국의 저지르는 행위들에 대해 '약자의 감수성'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감상적 휴머니스트로, 대책 없는 평화주의자로 유화시켜버렸다.

'국익'으로 다그치는 한국 정부의 오

래된 정치 논리 앞에, 각각의 국민은 안정적인 대미수출,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로 얻게 될 외화 특수, 북한 핵사태의 평화로운 해결, 그리고 집값 안정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package로 얻어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공병 500여명과 간호병 100명을 파견해서 얻어낼 이익이라면, 이 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으랴? 살상과 살육, 절망과 무력감, 성폭행을 수반하는 전쟁의 행위를 '저거 저 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거리를 두면서, 우리 국민은 목전의 이익을 상상했다. 목전의 이익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것임을 알고 있지만, 경제논리와 냉전 체제 하에 구성된 '혈맹'의 개념 앞에 반전이나 인권에 대한 외침은 무시당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이러한 편협한 '국익'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사의 평등한 동반자로 참여할 자격을 포기했고, 여전히 20세기의 냉전 구도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해 버렸다. 파병이 결정된 후, 어떤 식의 불협화음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협박이 시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승리'를 확인한 후에는, 반전 교육이 '반미'의 학습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감시'의 눈초리가 대서위졌다.

현정부의 탄생을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원한 나에게 현재의 상황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탈권위주의와 정



치적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새로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습관의 반복'이란 보수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탈식민주의와 글로벌 시민성을 상상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시대는 바뀌었으나 습관은 반복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승리를 인정하고, 반전 운동의 끝을 맺어야 하는가?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유엔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전쟁에 파병한 경우는 베트남과 이라크전쟁이다. 1964~73년까지 지속된 베트남 전쟁에서 연인원 30여만 명이 용병으로 참여했고, 당시에도 파병 반대가 있었지만, 파병이 결정되자 전 국민이 열광적으로 군인들을 환송하고 환영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절대 실업 상태에 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와 국가 발전의 욕망이 '국익'으로 대표되며, 전 국민을 국민적 주체로 호명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습관은 시대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이 결정되자, 더 이상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는 연설이 공중파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파견될 건설공병과 간호병에게 '침략자의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 (KBS, 취재파일)라고 호소하고 있다. 반전 시민 운동은 국가의 무책임하고 수동적인 결정 때문에 파견될 공병과 간호병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지만, 국론 분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국회의원들과 미디어의 유치함은 여전히 냉전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낙후된 '정치 감각'이다. 30년

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의 성찰적 시민들은 베트남 전쟁을 고통스럽게 자성할 '눈'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방식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치 의식을 드러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국민'과 '시민성'

한국 사회에서 '국민됨'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시민이 될 수 있는가? 좁은 의미의 시민권의 개념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당연히 국적성은 시민권을 얻기 위한 주요한 조건이 되었다. 특히 미국의 해계 모니적 질서 안에 냉전 체제의 논리로 운영되는 한국 사회의 시민권의 개념은 미국의 지배 질서를 고착시키고 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순응적'이고 '갈들여진' 국민 정체성을 강요해왔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법적으로 시민권을 보호해야 할 정치 주체이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와 한국 시민을 매개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한미 공조라는 의미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평등한 정치적 동반자가 될 수 없음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공조는 '종속'을 담보할 때만 유지된다. 지난 50년 간의 냉전 체제에서 미국은 대한 민국의 '혈맹'이었고, '우방'이었지만, 두 국가는 결코 한반도 '동반자' 적인 관계에 있어본 적이 없었다. 한미 공조를 위한 파병 결정은 이러한 냉전 체제 속에서 역사적으로 고착되고 습관화된 관계의 반복이며, 냉전 체제

를 그대로 지속시키겠다는 체제 유지적 발상이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내렸다는 '파병 결정'이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촛불 시위나 반전 시위는 20세기를 걸쳐 무력과 문화적 해계모니를 통해 구축해온 현실상의 한 국가인 미국의 패권주의를 해체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하나였으며 새로운 정치 주체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과정이었다. 무정형의 자발적으로 일어난 촛불 시위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격이 변화되어갔지만, 많은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미 행정 협정과 한미 관계를 재고찰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사실이다. 바로 현재, 이 지점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가능한 정치적 실천의 하나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를 반대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더 이상 전통적 개념의 '국민'으로 호명되기를 거부하고, 급진화된, 글로벌 정치학의 지평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호명되기를 원한다. 글로벌 시민의식이란 글로벌 정치학의 의미를 급진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 시민의식은 현재 내가 로컬에서 하는 일이 저기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Feminists speak against war!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일상의 평화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현재의 우리의 소박한 열망이 사담 후세인에 의해, 그리고 미국 부시 정권의 정권욕에 의해 비정상적인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연결될 때 우리는 글로벌 시민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시민이란 서구의 에티켓과 문명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내재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통속적 의미로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제까지 '타자들'로 간주되던 전 세계의 정치 주체들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즉, 강대국의 백인남성들이나 지역의 기독교 세력의 '타자'로 인식되어 왔던 주변인들 사이의 대화(dialogue)를 시작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감성과 인식 안에 깊게 자리잡은 식민지적 상상력을 해체하는 일이며, 권력이 없기 때문에 '동일시'하고 싶지 않았던 소수자들에 대해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무관심과 무지로 벗어나는 일이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타자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집단적 운동의 경험을 해왔던 여성주의자들을 글로벌 시민의 중심 주체로 설정한다.

'포스트-내셔널리즘'의 시민권

반전 시민 운동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한국 정부의 중재 없이, 그리고 방해 없이, 함께 뜻을 같이하는 국내,

국외의 시민/정치 주체들과 협상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국가로 대표되는 정치 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이 출현하고 있다. 우리의 국적성은 우리의 진보적 정치 개념에 효과적으로 부합할 때만 주장될 수 있는 정체성이며, 국가는 무조건적인 충성과 연대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련의 시민운동, 촛불 시위나 반전, 파병 반대 운동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익 등의 전통적인 관개성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정치적 주체와 정치학의 지평을 열고 있다. 이제까지 국가로 대표되어 '단일한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표상해야한다는 냉전 체제하의 민족주의의 합법적 지위는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공식화되지 않은, 무정형의 상태로 드러나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통적 국민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실천을 하는 정체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ost-national citizenship'의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반전 평화 시민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현실화되었다.

이제 국익, 경제적 이익, 자국중심주의의 '허위'를 볼 수 있는,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는 한국 내의 타자들은 새로운 글로벌 시민권의 개념을 상상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주 노동자들, 다양한 국적과 인종적 배경을 가진 '타자들'의 존재를 목격하고 있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의 국적성을 자신의 정체성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국가의 경계 밖에서 외국의 타자들과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시민 운동을 함께 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개인의 정치 감각과 이해 관계는 급변하는 '탈 국가적 상상력'의 개념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반전운동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임과 동시에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의 이해 관계와 정치 감각을 통해 설정된 운동이다. 이 반전, 파병 반대 운동은, 단순히 국익 차원에서 논의될 만한 '자국 중심적' 운동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반전' 운동은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신질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야간대를 언어화해내는, 포스트 내셔널 시민운동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시민성은 '운동'의 개념이며, 또한 새로운 '권리' 개념이다. 권리란 편협한 법적 권리도 아니며, 단일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도 없는 개념이다. 이는 문화적 권리이며, 확장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국가에 의해 '국민'으로 호명되어, 냉전 시대의 식민지적 상상력에 의해 '행동'하기를 요구 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호명 자체를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반전 시민 운동과 반미 해계모니 운동은 우리의 시민적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권리' 확보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반전 운동은 미국 정부의 전쟁 종식으로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포스트-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글로벌 시민 운동이다.



■ 토론회를 마치고

전쟁에 대해 말하기 그리고 행동하기

언제나 토론회를 할 때는 답답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당면한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 지에 대한 생각과 그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대부분의 경우, 토론회에서는 무주공산처럼 각자 자신의 견해를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답답함은 계속된다. 할 수 있는 일들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들은 심지어 구태의연하기까지 하다. 이것으로 뭔가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집회에 나가고, 발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뭔가 바뀌어 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웬지 우리는 계속 지기만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자위하기엔 뭔가 손해를 보는 것만 같다. 누군가 대답해줬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답을 해주진 않는다.

토론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게다가 페미니스트로서 전쟁에 대해 말한다면, 그렇다면 행동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글썽. 나 역시 대답은 없다. 나는 여전히 집회에 나가고, 토론회에 가고, 기회가 되면 발언도 하고, 글도 쓰고,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생각나는 구태의연한지도 모르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다. 어쩌면 그 구태의연한 실천마저도 전부 다 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나의 행동은 구태의연한지 모르나 다르다고 생각한다.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어쩔 땐 같을 지도 모르지만, 굳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전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말하기 뿐일 지도 모르지만, 나는 말함으로써 행동한다. 말하기 뿐인 행동은 하나만이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하나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절망과 무기력의 징후를 본다. 그리고 보면 나에게 말하기는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한 주문일지도 모른다.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된다.

나에게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나가는 활동가들에게 일종의 경의심을 가지고 있다. 계속 활동하다면 구태의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듯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조금은 자기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물론 항상 승리적인 평가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 토론회를 마련했던 두입술과 연세대 총여학생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났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

by_ 이현옥 (University of Sussex Gender and Development 석사)

전쟁에 반대하는 PEACE NOW

여 / 聲 反戰 영화제

รวมพลัง หยุดยิง สงคราม
Unit 13, 14, 48, 10 Super 8, 35mm film, video
www.peacenow.or.th United for Peace, Thailand

50년간의 침묵과 '이방의 여인들'에 대한 감상_몽이

50년간의 침묵

Fifty Years of Silence

(1994년 / 호주 / 네드 랜더 / 컬러 / 58분)



'50년간의 침묵'은 독일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들의 삶을 고치시킨 작품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Jan Ruhl-O'Home'은 도쿄에서 열린 국제 공청회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그녀가 밝힌 사실들은 전 세계에 보도되고, Jan은 계속해서 홀랜드에서 다른 네덜란드 여성들과 만나게 된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Jan의 용기있는 행동에 고무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여론회하기로 결심한다.

이 영화의 감독 '네드 랜더'는 1956년 호주의 애들레이드에서 태어나 멜버른에서 자랐다. 그는 1977년 다큐멘터리 'Dirt Cheap'(1979년)를 제작하였고, 1980년 City Pictures를 세웠다. 감독뿐만 아니라 제작과 시나리오 작업까지 참여한 영화 'Wrong Side of the Road'로 1981년 AFI(미국영화협회의) 주리상을 비롯하여 최우수 영화상, 최우수 영화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다. 1987년에는 'Paining The Town'으로 그해 AFI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방인의 여인들

The Women Outside

(1995년 / 미국 / J. T. 다카기 / 컬러 / 60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한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나랑은 먼 얘기라고 내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나 일어난 이야기라고.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나랑은 상관없다고. 그래서 그럴까? '이방의 여인들', 처음 영화 제목을 들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저 귀가 이 영화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잘 알리고 하지도 않는다. 내 바로 옆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눈과 귀를 억지로 틀어막고, 나는 잘 모른다고 끝까지 우겨댄다. 그런 우리에게 이 영화는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폭력, 가질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던 소박한 꿈들, 저당잡혀야 했던 최소한의 자유. 이 모든 것은 결코 '이방'의 것들이 아니라고. 그분들은 결코 이방인이 아니라고. 그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절망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2003년 4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의해 피해받고 있다. 오히려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가까만 한다. 여전히 나오는 다른 얘기라고 고개 끄는 우리에게, 이 영화는 또다시 나직하게 속삭인다. 그분들은 결코, '이방의 여인들'이 아니라고. I'm not that kind of the girl이 아니라고.



50년간의 침묵과 '이방의 여인들'에 대한 김경미 _ 몽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직도 말할 수 없다

‘50년간의 침묵’과 ‘이방의 여인들’을 보면서 나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여성들의 증언과(50년간의 침묵)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군 부대 옆 기지촌 성매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이방의 여인들) 보고 슬픔과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들의 영화 속에서의 증언만으로도 이 한 페이지는 내일 있게 꼭 채워질 것을 한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 혹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함께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니까.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녀들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들의 ‘침묵’이다. 어쩌서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상처를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그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들 한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실제로 2년의 상담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말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나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앞뒤 안 가리고 기뻐했고 항상 많은 말을 쏟아 놓았으므로 상당히 성실한 피상담자였다고 생각된다. 상담은 결과적으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지만 나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그래야만 고통스럽더라도 진정으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었다. 몇 사람이고 가까워지는 사람들에게는 강박증처럼 상처받은 과거, 혹은 현재에 대해 말하려 하고 그것 없이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상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나마도 호의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말해서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임을 알 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며 주위의 시선으로 상처를 재구성해서 별 것 아닌 일로 상처받은 자신을 탓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너무 큰 상처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고 그저 충격으로만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많이 답답하게 여겨졌던 그녀들의 침묵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겠지. 그러다가 말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어딘가에 끄적이기도 하고 그것을 버리기도 하며 상처 속에서 살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구나. 세상의 어느 도난당한 집 사람도 도난당했다는 사실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을텐데 그녀들은 더 큰 피해를 입고도 그런 것들에 시달렸구나. 자신이 상처받은 경험조차 다른 사람들의 통념에 의해서 수치심으로 해석되는 현실에서 그녀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녀들은 침묵을 껴으로써 그녀들이 얻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일상의 파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가깝게는 어렵게 얻은 가정의 파괴부터 지금까지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이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초리와 가십거리, 잘 해봤자 마치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듯한 동정의 시선이 그녀들이 침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의 전부라는 것을.

하지만 저 모든 부당한 파괴를 감수하고 그녀들은 말을 했다. 아니, 몇 명의 그녀들이 영화 속에서 내게 말을 했다. 아직도 말할 수 없는 그녀들이 많이 있다. 두 영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화자 곁에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침묵을 깨는 데는 일차적으로 그녀들의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녀들 곁에 있는 ‘그들’의 존재도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녀들의 이야기를 가십거리 삼아 도마 위에 올리지도, 그녀들의 아픔을 민족적 아픔으로 몽둥그려 그녀들과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지도, 자신과는 아주 먼 곳에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녀들을 ‘이방의 여인들’로 취급하며 동정하지도 않았다. 아직도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녀들의 말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영화의 그녀들 곁에 있었던 그들과 같은 존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말할 수 있는지, 혹은 아직도 말할 수 없는지는 슬프게도 그녀들이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고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들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계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사회의 침묵과 그녀들이 어떤 말을 해도 편견 없이 듣지는 않을 거라는 압박이 그녀들의 입을 막은 것이다.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

공공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몰래 훑쳐보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화장실은 칸이 분리되어 있지만, 벽 위와 아래가 둘러 있는 구조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잡혔을 때 대부분의 경우 별 어려움 없이 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화장실을 남성이 침입하는 것은 화장실을 엿보다 들킨 남성이 주변과 분리된 화장실이라는 공간 특성상 여성에게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경우 화장실은 성폭력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화장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비상벨이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의 경우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들에 의한 이러한 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서울지하철 공사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을 목표로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몇몇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상벨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 비상벨 사용법

여자 화장실 각 칸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고 화장실 밖에 설치된 경보등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비실에 경보신호가 가게 됩니다.



성폭력 예방 비상벨 설치

Q&A

Q :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할 만큼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나요?

A : 해마다 여자 화장실을 엿 칸에서 엿보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있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기숙사 여자 샤워실에 남학생이 들어온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몰래 찍어가려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몇 사건이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왔다는 것과 별다른 조치 없을 경우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겠죠.

Q : 그래도 대학생이라면 지성인인데 비상벨을 학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A :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남성들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학생도 있고 외부인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 전부가 지성인이란 무수한 도난 사건도 없겠지요^^

Q :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는 것은 남학생들을 전부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보는 것 아닌가?

A : 사물함에 모두 자물쇠를 설치한다는 것을 학생들을 전부 잠재적인 도둑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상벨은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사건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줄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Q : 비상벨 설치가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나요?

A :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부터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실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비상벨을 통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의 경우 화장실이라는 고립된 공간 안에서 비상벨이 없었을 경우 도움을 받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 군사주의를 여성의 입으로 말하기

글_ 나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를 받아들고 나는 어떤 책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지를 여기저기 뒤적거리 보기도 하면서 고심해봤지만 뚜렷한 것이 잘 잡히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거나 소개된 서적들은 대개 일본군 성노예와 미군 기지촌문제를 포함한 군 성매매 문제를 '민족주의'라는 범주 안에서 논의한 것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제국과 식민지 혹은 제 3세계 국가인 한국과의 '가부장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즉 미국이라는 초-제국이 국제사회의 제동 없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내걸고 이라크와 불법적 전쟁을 한 이 시점에서는 민족주의가 아닌 그것을 포함하는, 전지구적

국제관계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집어든 책이 국제관계에서의 여성의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책인 신시아 인로 Cynthia Enloe의 『바나나, 해변, 그리고 기지 Bananas, Beaches, and Bases』(1989)이다. 이 책은 오직 전쟁과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관계 속에서 여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맥락을 쉬운 어법으로 풀어내고 있어 이를 통해 전쟁이 행해지는 남성화된 국제사회의 문법인 군사주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여성들은 어디에 있는가?”

얼마 전에 방한한 적이 있는 신시아 인로가 『바나나...』에서 던진 질문이다. 그녀가 한국에 왔을 때 강연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페미니스트의 호기심'을 가지자는 것이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반박한다. 신시아 인로는 바로 이 같은 종류의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 “국제관계나 국가 안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곧바로 그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온갖 국제적인 문제에서 그 행위자들이 남성이었다는 사실 혹은 군사주의 자체의 남성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국제 관계에서 모든 행위자들이 남성이고 여성들은 항상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질문은 '왜 없는가?'가 아니라 '어디 있는가?'이다.) 그녀는 대부분 국제관계를 말할 때 자본주의와 군사주의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사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즉, 여성을 상징으로, 소비자나 노동자로, 혹은 감정적 지지자로서 통제하는 가부장적인 방식을 놓치는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성이 전쟁 혹은 군사주의에 의해 얼마나 억압받고 피해받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한 축으로써 여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서 무엇을 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국제관계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분석하고 있다. 그녀는 국제적 자본주의와 그 속에서 소비하는 혹은 상품의 이미지로 전시되는 여성, 혹은 국제적 범용관계 속에서 짊어짐을 받고 일하는 제 3세계 여성, 그리고 군사 기지내의 여성 혹은 외교관의 아내의 역할 등을 분석하면서 집요하게 국제 관계 속에서 여성들을 “드러낸다.”

그녀가 말하는 국제 정치의 문법은 '남성성'이다. 그녀는 87년 레이건 정부의 이란/콘트라 무기 스캔들에 대한 국회심리를 관찰하는 동안 남성적인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방식의 말하기, 태도, 애국심 등이 국제 정치를 말하는데 더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관찰한다. 국가 안보를 말함에 있어서 이 위험한 세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되지만, 실제 정말, '평화를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가?' 그녀가 볼 때 평화적 방법이 공공연하게 무시되고 군사주의적인 방법이 존중되는 것은 여성성/남성성-평화/전쟁, 전쟁의 피해자/가해자, 보호받는 자/보호하는 자-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여성화된 희생을 전제한 남성화된 masculinized 존엄을 좇는 국제 정치 양상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국제관계에서의 군사주의와 전쟁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이 조직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것은 국제적인 것이다.” 일상에서의 남성화된 권력관계는 바로 식민화된 정책, 무역 전략이나 군사주의 등의 국제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녀는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이 말을 거꾸로 바꾼, “국제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에서 찾는다. 국제관계 혹은 그 행위자인 국가(정부)는 일정한 사적인 관계(예를 들어 외교관과 그의 부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개인행위자의 행동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행동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그녀는 우리가 남성화된 방식을 폭로하고 보이지 않던 여성행위자들을 드러내는 등을 통해 이 '강령'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책인 캐서린 문의 『동맹 속의 섹스』(2000)는 신시아 인로가 국제관계를 사고하는 방식을 한국의 미군 기지촌 문제에 적용하고 있는 글이다. 기지촌 매매촌 여성들을 분석하는 과거

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제국주의에 비판적인 시각은 미선이, 효순이의 짓밟힌 몸이 국가 간 힘의 관계를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짓밟힌 여성의 몸과 '여성화된' 무력한 약소국을 동일시한다.

또한 페미니즘적인 시각들도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가간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이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양자의 시각 모두 기지촌 여성들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의 행위자는 오직 성별화된 국가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국제 관계 속의 외교적 협상과정에서의 중요한 행위자중 하나로 이들이 어떻게 이용되었고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드러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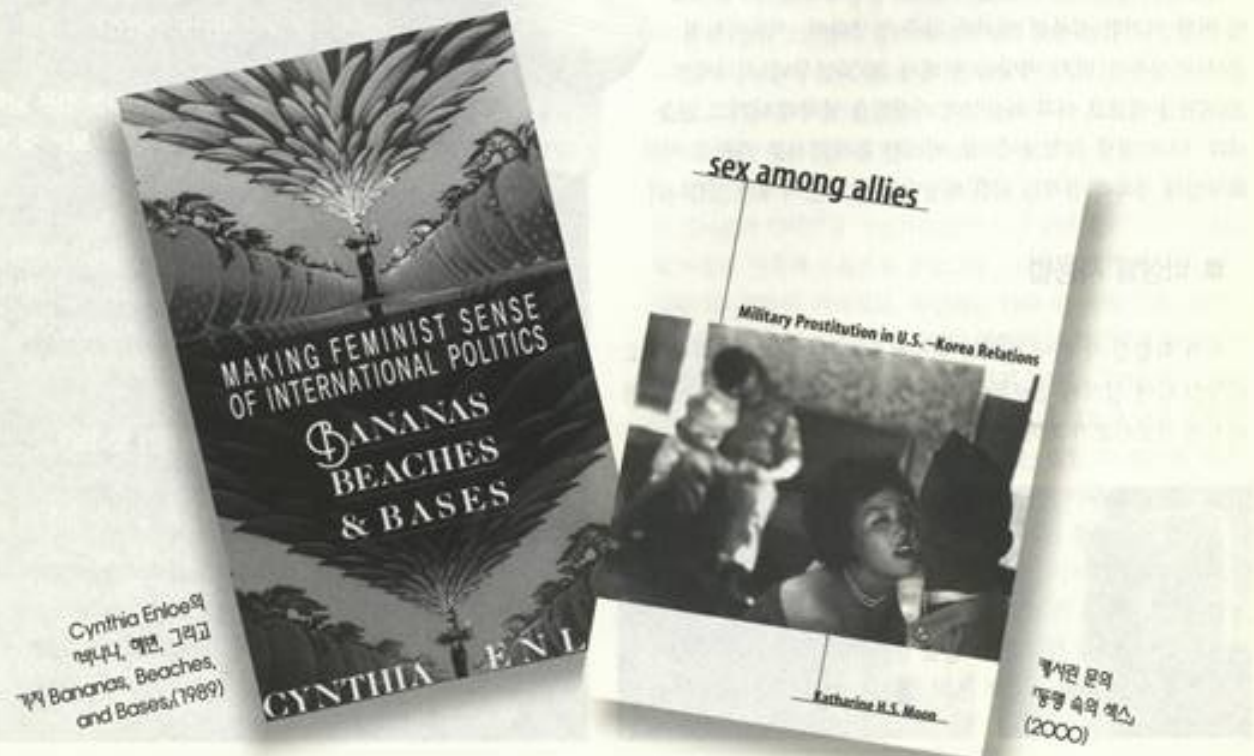
캐서린 문이 주목한 사건은 1971~1976년 사이에 일어난 기지촌 평화운동이다. 베트남전 이후 미 정부는 한국의 미군철수를 고려했던 반면 주한 미군은 자신들의 '임무'를 중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철수를 원하지 않았고 박정희 정부는 자기 정당성을 위해 미군 주둔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미군내 성병과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정치화되는 세력'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는 전략의 일환으로 기지촌 평화운동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기지촌 평화운동은 기지촌 여성들의 자율권을 빼앗고 수치심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당시의 긴장된 국제관계가 드러난 기지촌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게 되었다.

신시아 인로와 캐서린 문의 책은 여성의 입으로 여성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국제 정치에서 다른 부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군사주의와 관련하여 여성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군사주의가 남성행위자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상징이나 지지자 혹은 또 다른 행위자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군사주의가 작동하는 전체적인 남성화된 양상을 조망하게 하면서 국제관계에서의 여성 피해자-행위자를 가시화하여 이들을 다시금 이러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행위자로서 범주화해 낼 수 있도록 이끈다.

'피해자' 범주는 이들이 이러한 권력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다른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또다른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을 담지할 수 있는 '행위자' 범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해 스스로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서평]





‘어떤’ 사생활이 침해되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워하는 사생활은 무엇인가. 수많은 루머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야동’들, 일련의 사건들에서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스타의 섹슈얼리티에 이상하리만치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으며, 특히 그 관심은 여성 스타들의 사생활에 집중된다. 황수정의 마약 복용 사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것이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최음제’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유진과 박용하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유진이 다리를 벌리고 박용하의 무릎에 앉아있다는 데 가장 관심을 보인다. 그 사진 만으로 사람들은 그 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갈 때까지 다 갔겠군, 유진은 해본 여자겠군’ 식의 추측들을 남발한다. 이런 식의 화살은 박용하를 향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은 한 유진의 자세가 말해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 사진이 문제가 된 이유는 두 사람의 연애 관계가 밝혀지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 스타는 섹스어필해야 하는 동시에 ‘순결’해야 한다는 이중적 기준은 유진을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만든다.

여성 스타는 저항할 수 없다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나의 상식과는 달리 유진은 연예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소속사는 유진의 이미지가 이미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연예활동을 계속 하려면 박용하와 헤어지라는 주문을 했고, 유진은 연예 활동 중단을 선택했다고

왜 박용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유진은 연예활동을 중단하는가?

나는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진 유진과 박용하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사진이 있을 때면 으레 등장하는 스타의 사생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물론 누구의 사생활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스타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스타라는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침해받지 않는 스타의 사생활이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스타의 사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이다. 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왜 박용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유진은 연예활동을 중단하는가?

글. 핑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석사과정)

한다. 박용하의 소속사가 범인과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조치이다. 적어도 지금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말이다. 유진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지금 그녀는 그녀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저버린 죄인이기 때문이다. 여성 스타들은 다만 눈물로 호소할 따름이다. 백지영이 그랬고, 오현경이 그랬고, 함소원이 그랬다. 순전히 오해에 의한 피해이든, 실제 문제와 연관된 피해이든, 그녀들은 모두 피해자였지만 그녀들은 자신이 겪은 부당한 피해에 대해 당당히 발언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인신공격에 대해 눈물로 호소해야만 했다. 그녀들이 만약 “나는 피해자이며 가해자들은 당신들”이라고 선언했다면, 눈물을 흘리는 대신 법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논쟁에 끼어들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하는 질문은 부질없는 것이다. 여성 스타들은 단지 보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은 그녀들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미디어는 그녀들의 우는 모습을 가학적으로 찍어내고 유포한다. 하지만 그녀들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 ‘흥미로운 사건’을 신나게 보도하며 만들어진 많은 추측들과 소문들,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대중의 고정 관념 안에 자리잡기 때문이다. 부정한 여성이라는 이상한 꼬리표가 그녀들에게 붙게 되고, 그녀들은 이에 저항할 수 없다. 여성 스타란 그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힘있게 발언하는 여성 스타가 보고 싶다. 박용하와 헤어지는 것 외에는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눈물의 호소 대신,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당당히 말하고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집중되는 관심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여성 스타가 보고 싶다. 자신의 커리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성 스타를 원한다. 왜 여성 스타는 항상 부당한 피해에 눈물로 호소해야 하는가. 그것은 또다시 여성은 사적 영역에, 남성은 공적 영역에 속해있다는 낡은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성 스타들은 단지 보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은 그녀들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미디어는 그녀들의 우는 모습을 가학적으로 찍어내고 유포한다. 하지만 그녀들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화장,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글 푸름

내 여자친구는 화장 안해도 이쁘!
그러나 그녀를 봤을 때 난 알았다.
그건 1시간30분짜리 투명 메이크업이었다...
가장스런 그녀의 한마디...
"미리 알려줬으면 화장이라도 하고 나왔을텐데..."

얼마 전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화장에 대한 남성들의 이중적 잣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장 '떡칠한' 여자에게는 '천박하다', '노는 애 같다'는 딱지가 붙는다. 그렇다고 화장을 하지 않고 다니면 '좀 가짜'라 더가 심하면 '예의없다'는 말까지 듣게 된다. 하긴 하되 '안한 것처럼' 해야 하는 골치아픈 화장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최초의 화장

우리나라에서 미의 기준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단군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곰과 호랑이가 먹었던 송과 마늘은 오늘날에도 잘 알려진 미백제이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흰 피부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피부가 희어질 것인가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화장은 물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지만 아무래도 생존이 급박했던 시절이기에 장식보다는 실용적이거나 주술적인 의미가 강했다. 추운 지방에 살던 고대 읍루인들은 동상을 막기 위해 피부에 돼지기름을 발랐다. 오늘날의 바세린과 유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집트에서 화려한 눈화장이 발달한 이유도 따가운 햇볕으로

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제물을 바칠 때의 화려한 화장은 원시 종교에서 주술의 도구로 행해졌다.

소박한 삼국시대의 화장

'바리공주'를 읽어보면 태어난 딸을 기르는 과정에서 '연지 닳되 분 닳되...'라는 구절이 나온다. 오늘날까지 화장품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연지와 분은 바로 삼국시대에 만들어졌다. 파우더의 원료로 쓰이는 활석은 놀랍게도 삼국시대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외에 칠가루나 흙가루, 쌀가루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서 조금 발전한 것이 분꽃 열매의 씨 속에 든 하얀 가루이다. 이러한 천연분은 부착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후에 납을 산화시켜 만든 '연분'이 만들어진다. (연분 이야기는 조금 뒤에 언급하겠다.) 색깔이 든 산단(山丹)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붉은 백합의 꽃술을 따서 말려 누에고치 집에 묻혀 불에 토닥거리 사용한다.

5~6세기경, 고구려 수산리와 쌍영총 벽화에는 연지를 바른 여인이 그려져 있다. 연지 화장이 성행했던 이유는 붉은색이 잡귀를 쫓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본래 연지는 불에 바르는 것이었지만 여자의 입술이 창백하면 사집을 못가고 자주색이 돌면 음탕하다는 관념이 있어 입술 색을 붉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연지의 재료로는 잇꽃이라고 불리는 홍화화, 수은과 유황으로 만든 염료인 주사(朱砂)가 있었다. 홍화 연지는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비싼 데다 색이 선명하지 않아 곧 주사 연지에 밀려나게 된다. 주사에 날개란, 명반, 사향 등을 섞어 만든 연지는 고운 색을 내지만 수은의 독성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 치명적이었다. 신라에서는 "아름다운 육체에는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 때문에 남성들도 흔히 화장을 했다. 그러나 아직은 화장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었고 불교의 영향 때문에 삼국시대의 화장은 대체로 소박한 특성을 지닌다.

사치스러웠던 고려 시대의 화장

고려 시대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핀에 따라 여성들의 화장도 사치스러워졌다. 이 시대에는 전대의 연지 화장이 퇴조한 대신 불교 전래에 따라 들어온 방향 풍속이 대중화되었다. 향료에는 식물이나 광물 등 다양한 재료가 쓰였지만 최상급으로 여겨진 것은 역시 사향(麝香)이었다. 사향은 사

향노루 수컷의 복부에서 채취하는데 번식기에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풍기는 향이므로 성욕을 촉진시키는 용도로도 사용했다. 그래서 미운 딸이 시집갈 때 소박을 면하도록 사향낭을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향료 이외에 다양한 눈썹 화장법도 전해진다. 재료는 주로 식물성이었는데 묵탄, 묵화꽃을 태운 꽃재, 보리쌀가루 등이 있었다. 이들 재료를 기름에 재어 사용하는 것이다. 검푸른 아청이나 진한 자줏빛의 대, 갈(褐), 혹은 검푸른 흙이 쓰이기도 했다. 눈썹 모양 하나로 얼굴 전체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십 가지의 견본(?)이 있었는데 초생달 모양의 초생미, 누에 더듬이 모양의 아미, 당미 등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고려 시대 화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여염집 여성과 기생의 화장법이 이원화되었다는 점이다. 건국 초기 고려 왕조는 중국의 기녀제도를 본받아 교방(交坊)을 두는 등 사실상 공창제를 만든다. 당시 기녀의 기본 화장은 백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는 분대였다. 반면 여염집 부인들은 화장을 열게 한 대신 향료를 애용했다. 짙은 화장을 '천박하다'고 보기 시작한 것은 이때가 시작한 것이다.

남성의 입맛에 맞는 미의 기준-조선시대

조선 시대는 유교 원리가 생활의 규범이 되면서 '표면상' 여성은 외모보다 행실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남성들은 결혼상대로서의 이상형과 연애에서의 이상형을 양분하기 시작한다. 며느리나 아내로는 건강하고 덕이 있는 여성을, 소실이나 기생은 흰 살결에 앵두 같은 입술, 가는 허리로 오늘날 미의 기준과도 비슷하다. 따라서 여염집 여성들은 화려한 화장보다는 깨끗한 피부를 갖기 위해 애썼고, 기생이나 궁녀 등은 성적(成赤)이라 불리는 붉은 화장을 유지하였다. 그 당시 여성들은 미안수(화장수)를 애용했다. 미안수의 재료는 대부분 식물의 즙이다. 오늘날에도 화장품 재료로 쓰이는 수세미, 오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를 바르면 피부에 잡티가 사라지고 윤기가 난다고 한다. 그밖에 계절에 따라 창포 잎, 복숭아 잎, 유자씨 등이 쓰였다. 세정제로는 팔 또는 녹두를 더운물에 비빈 거품으로 얼굴을 씻었는데 팔로 만든 조두는 세정과 미백 효과가 뛰어나 왕비도 애용했다고 전해진다. 에센스와 비슷한 용도로 꿀을 이용하기도 했다.

피부 미용에 신경을 썼기에 자연 미용 목욕도 성행했다. 다만 옷을 벗는 일



자제를 죄악시키는 유교 윤리 때문에 주로 명절에 한해 행해졌다고 한다. 인삼탕과 마늘탕 이외에 난초를 넣은 난탕(蘭湯)이 있었다. 단오날에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유두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은 미용이 곧 세시 풍속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위 '메이크업'은 주로 기생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상류층 여성들도 은밀하게 행했다고 전한다. 무료한 생활을 달래고 기생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남편의 마음을 끌기 위해 그녀들은 때로 법도를 어기기도 했던 것이다. 사대부가의 가정백과라 할 수 있는 임어당의 '규합총서'에는 여러 가지 머리모양과 눈썹 그리는 법, 연지 바르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가 양반가의 여성이며 그 내용도 기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개화기,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의 화장

우리 나라 최초의 기업화된 화장품은 1916년 박송직이 만든 '박가분(朴家粉)'이었다. 납이 들어간 연분(鉛粉)의 일종인 이 분은 부착력이 좋으며 물에 개어 사용하기 편리해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납 성분은 피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분을 오래 사용한 기생의 피부가 푸르딩딩하게 부어올랐다는 기록도 있다. 납 부작용으로 물의를 빚은 데다 외래 화장품과의 경쟁에서 밀려 1937년 박가분은 자취를 감춘다.

일제 시대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화장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졌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 깨진다"는 광고가 피처럼 현대의 미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씹는 가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장에 대해 변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다. 화장은 자신을 만족시키기보다는 남성들의 미적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방향으로 발달해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에는 화장을 해도 안한 척, '원래 예쁜' 여자라고 보여야 하니 참, 피곤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남자 벗어던지기

나는 '남자'를 거부하고 싶었다.

중고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의 무식한 힘 자랑과 친절을 위장한 장난에 치여 살았고, 치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남자애들의 성기 크기에 대한 자랑과 노력(?)에 유치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모르게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괴로워했다. 항상 남을 깔아뭉개고, 위에 서야만 쾌락을 느끼는 그 도래 문화에서 나는 대상이었고 또한 주체였다. 도래들은 힘과 폭력을 자신의 '남성성'으로 연출하였고, 좀 나이가 들면 성적인 과시-실제와 허풍이 섞여서-로서 자신의 '남성성'을 연출하고 도래들과의 '남성 유대'를 돈독히 하였다. 고등학교 때 한 교사는 "남자는 '힘'과 '돈'이야."라며, '힘'이 없으면(성폭력이 실패하면) '돈'으로 '여자'를 꼬셔야 한다(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기까지 했다.

대학에 와서는 숨통이 켜졌다. 남자 도래와 강제로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여자들과 같이 지내게 되면서, 그리고 여성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나에게 강요되던 '남자 되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과시적인 술 마시기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전락시켜 입을 놀리던 일은 그만! 나는 펀치를 날리거나 욕을 하면서 우정을 표시하는 대신 솔직한 감정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 우정을 쌓아나가는 방법을 익혀나갔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려 하였고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우고 겉으로 강해 보이려는 노력도 버렸다. 힘든 일 있을 때면 '남자는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감정적 억압을 떨치려고, 수다스럽게 시시콜콜 불평불만을 얘기하였다.

기사도 정신-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은 배려가 아닌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려는 것임에, 그것도 벗어던졌다. 옷 또한 남자들이 입는 칙칙한 색깔이나 단순한 디자인을 거부하고 싶었다. 분홍색, 꽃무늬 옷, 남자 옷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말투 또한 소위 여성적 어투와 감탄사를 남발해 보기도 하였다. 호칭으로 '언니'를 사용해보기도 하였다(예전엔 남자들 사이에서도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했단다). 그래서 못 여성들에게 '너는 여자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 '넌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칭찬(?)을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며칠 전 '드래킹 공연'을 보면서 나는 드래킹이 되어 보는 상상을 하였다. 나에게 주어진 남자(외관상이라도)를 벗어나 보는 것, 얼마나 짜릿한 일일까.

으하하, 난 드래킹을 벗어던진 것인가. 정말로...?

이 글의 '남자 벗어던지기'를 드래킹이라고 하는 데, 그 공헌하신 국민적인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면서 고상적인 성의 관계를 제정하려는 의도와 제로인스를 하였다.

'남자 벗어던지기'가 단지 외모와 문화에 있어서 '남성성 탈피'가 아니라, 사회권력적인 구조 차원에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려는 노력을 의미하지 않을 때, '남자 벗어던지기'는 남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동안의 억압(이라고 생각되는)을 벗어 던지는 해방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자'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같이 스터디하던 친구에게서 튀어 나온 질문, '다시 태어나면 너 여자가 되고 싶어. 남자가 되고 싶어?' 나는 반은 의식적으로 반은 무의식적으로 '남자'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남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의 덕목을 수행하는, 폭력/수직적 서열을 추구하는 남성적 문화에 익숙한 남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취할 수 있는 위치로서의 '남자'였다. 그랬던 것이었다. 이런 이런 이기적인 것...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같이 술 마시던 여자친구들 중 많은 친구들이 집안의 단속 때문에 일찍 자리를 떠야 했을 때, 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시간이 늦어서 택시를 타야 했을 때, 내가 택시 번호를 적어주어야 친구는 안심하고 차를 탈 때, 나는 아무 택시나 잡아 타서 집에 돌아왔다.



여자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주위의 눈치를 살폈을 때, 난 아무 거리낌 없이 담배를 꺼내드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다. 여자 친구들이 직·간접적인 성폭력 얘기를 하였을 때, 또한 취업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배제되는지에 대한 체험담을 이야기 할 때 같이 분노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내가 '남자'라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나는 여자들과의 생활을 통해 여성의 문화, 여성주의적 문화를 습득하면서 '문화적인 남성성'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것을 '남자 벗어 던지기'로 알고 있었지만, 나의 '사회적 남성'의 위치의 이득과 편리함을 생각했을 때, 나는 완전히 '남자 벗어 던지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옷을 벗으려다 '어 이게 아닌데' 하며 주춤거리는 꼴을 하고 있다.

'남자 벗어던지기'는 단지 외모와 문화에 있어서 '남성성 탈피'가 아니다. 그것이 사회권력적인 구조 차원에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려는 노력을 의미하지 않을 때, '남자 벗어던지기'는 남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동안의 억압(이라고 생각되는)을 벗어 던지는 해방감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 같이 지금 내 안의 '여성성' (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즐기면서도, 사회적인 '남자'를 거부하지 않는 인간을 양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휴...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오늘은 반성하는 하룻밤을 지내야겠다.

글, 라이

(여성주의를 통해 나를 비롯한 남성들이 그 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는것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교수님도 이제 그만!

에피소드1 나쁜 오후에 잠 확 깨는 소리

4년전 쯤 일이다. 졸리기 딱 좋은, 늦봄 나쁜 오후의 개론수업 시간. 사람 좋은 얼굴로 교수가 어느 이야기 끝에 말한다.

"나는 사실 여학생들이 건물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걸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해요.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정말 가서 말리고 싶다니까, 장차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 말이야"

욕, 이게 무슨 소리가. "여학생-어머니-담배 안돼"의 고리타분한 논리여. 잠이 번쩍 깨다. 벌써 내 가슴은 벌렁거리기 시작한다.

갖 여성주의를 알기 시작했던 무렵, '교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잘못하신 것인지' 또박또박 말하기에 나는 한참 어눌했다.

'손을 들고, 여학생은 밖에서 담배 피우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교수님의 말씀은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아이...논리적으로 말 못하고 더듬거리면 어쩌지, 교수한테 뭐라고 했다가 찍히면 어쩌지...그래도 말해야해, 어쩌지 어쩌지'

손을 꼭지락거리며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교수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도 한 듯한 흐뭇한 표정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아..놓치고 말다니...'

에피소드2 그리고 어이없는 발언은 계속 되다

그 이후 많은 수업 시간에 불편한 농담과 불편한 조언을 듣는다. 나, 나의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분노를 담은 제보까지.

"여자는 때려야 말을 들어..."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울길래 내가 야단쳐서 보냈지. 그냥 있고 잘 살면 되지 될 성폭력 좀 당한 걸 가지고 울고 그러냐고"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거든?...청소년 성매매를 해서 걸린 사람들 보면 연대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고대는 별로 없어. 아마 고대생은 자고 나서 돈도 안주나 봐"

이 모든 사례가 수업 시간 중에 나온 것이라면 당신은 거짓말이라 하겠는가. '교수 어록'을 만들어도 한 권은 나올 것이다. 나의 한 친구는 특정 교양 수업에서 한 학



기 내내 불쾌했던 농담을 빼곡히 적어 수첩 한 권을 채우기도 했다.

에피소드3 개작두에 교수들 긴장하다

지난 해 서울대에서는 수업 시간에 교수들이 한 성차별적 발언을 모아 자바로 공개하는 '개작두'라는 모임이 활동했었다. 모임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붙는 공개 자보는 교수들을 바짝 긴장 상태로 몰고 갔었다고 한다. 교수들도 자신의 발언이 별로 소문낼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알았나보다.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방선'이라는 사실은 알았나보다. 그러면 서도 수업 시간은 절대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인 줄 알고, 학생들 앞에서 '부적절한' 농담 좀 했기로서니 그게 뭐 그리 문제될 게 있겠냐 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수업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물론 1차적으로 교수에게 그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책임도 있다.

에피소드4 보이는 위험을 막아내기

얼마 전에 또 대구 지역 두 대학의 교수들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났다. 대학이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그 '대학'의 범주에 '교수님'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깜빡하고 만다. 사회 전체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것을, 어찌 교수라고 예외가 될 수 있으랴.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수 성폭력 사건들'이 다

리 건너 남의 일만 같은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인 수업 시간의 '찜찜한 이야기'는 법적 공방이 오가는 '끔찍한 교수 성폭력' 사건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성차별적 발언을 듣는다 해도 너무 놀라지 말자. 세상이 다 그런 것이니 그러려니 하자는 말이 아니다.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문제제기 하자는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까말까 하는 망설임은 없어도 된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 이메일을 보내 정중히 항의하고, 사이버 수업 게시판에 토론 주제로 올려도 보고 성폭력 상담실에 제보하기도 하자.

당신의 불쾌감과 분노는 너무나 정당하다. '어찌 스승인 교수님께 그런 지적을 하는 것도 전혀 '너무한' 과한' 일이 아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도 아니다. 누구든 잘못된 일은 지적 받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직 가부장적 사고를 벗지 못한 것이고 덜 성숙한 것이지.

글. 이걸 (출거운 페미니스트)

늘 출거운 페미니스트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엔 차 시중 사건부터 해서 우울한 일이 많다. 여성주의 영화 기획에 관심이 많으며 여성주의 자치언론 '두입술'과 사이버 여성주의 자립 '일다'(www.ildaro.com)에서 활동 중이다.

이제 수업 시간에 성차별적 발언을 듣는다 해도 너무 놀라지 말자. 세상이 다 그런 것이니 그러려니 하자는 말이 아니다.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문제제기 하자는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까말까 하는 망설임은 없어도 된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 이메일을 보내 정중히 항의하고, 사이버 수업 게시판에 토론 주제로 올려도 보고 성폭력 상담실에 제보하기도 하자.

연세대학교 응원단 아카라카에
연세학우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마초맨' 응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마살헤어살롱
[이대점]

내일케어+내일칼라링 무료

***예쁜 크리스탈도
물어드립니다.***

주소: 20201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1로 157-1 (해운대역 역상점)
문의: 02-552-0000 (평일 10:00~19:00, 주말 11:00~18:00)
이메일: info@beautemall.com
오픈시간: 내일케어+ 내일칼라링 10:00~19:00
코스: 100% 천연 오일, 100% 천연 오일, 100% 천연 오일



프리스코
[이탈리아 레스토랑]

전매율 30% 할인
〈 프리스타일 피자 피자 등 〉

임주건 : 2020년 1월 30일
이탈리아 레스토랑 프리스코
프리스코 02-212-4690
오시는길 : 대치동 20동 7층 100호실 운영 50m
무작 75

서울랜드
 (티베트)
 서울랜드 할인권(대학생)
 휴간요금: 25,000 → 13,000
 해간요금: 18,000 → 10,000
 (02)930-0000 오후 5시부터 적용됩니다.

스포츠의 즐거움

스포츠의 즐거움

스포츠의 즐거움

스포츠의 즐거움

스포츠의 즐거움

스포츠의 즐거움

토요백업!!

토요 백업!!

토요 백업!!

토요 백업!!

토요 백업!!

토요 백업!!

토요 백업!!

토요 백업!!

토요 백업!!

토요 백업!!

토요 백업!!

토요 백업!!

[illegible][illegible][illegible]

포도밭은 푸른 그늘

피자몰 피자전문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서동 11-1
전화: 042-250-0000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10시
영업종료: 오후 10시

피자한조각 무림채운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서동 11-1
전화: 042-250-0000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10시
영업종료: 오후 10시

미스터피자 **도오레카포**

20% 할인권
(내량 배달 주문시 사용가능)



- * 본 푸장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총 주당 금액의 20% 할인
제대로 된 피자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 미스터피자의 다양한 피자, 샌드위치와 음료, 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 사용 기간 : 2003년 8월 30일까지

미스터피자 이다돌 TEL. 364-1100

보수혁명론 11

센티에로 [스페인대전원집]

10% 할인

유치기간: 2023년 6월 30일까지
 대원번호: 18097 18 188
 전화번호: 02-315-2770
 주소: 서울 용인시 용인읍 용인로 119-100 (용인역 역지)

보안책상
010-9701-2100

보안책상
010-9701-2100

OkachEn 키친

성경출판사원

진행중 10% 할인

모든 특별 할인 가격 시에는 물론

보안책상 2000원 이상 구매시
보안책상 10% 할인
보안책상 20,000원 이상 구매시
보안책상 5% 할인

보안책상 20,000원 이상 구매시
보안책상 5% 할인

보안책상
010-9701-2100



보안책상
010-9701-2100



보안책상
010-9701-2100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Day Dream 2호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포스트 무료 제공
 [문자전송료 포함]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정준시대 [상점]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작은정원 [카페]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Top Player BAR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바그다드 [북카페]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기린에어페스타 [퓨전백주점]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IN.PASTA [스파게티전문점]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페르틀라스 [에스킵/빙수]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클림 웡완 [북점]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T.G.J FRIDAYS [클럽/ 레스토랑]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아수라 ASURA [퓨전바/ 레스토랑]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상하이베이 [중국식 레스토랑]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Whoever [커피/ 베이커리점]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Whoever [커피/ 베이커리점]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Whoever [커피/ 베이커리점]
 2003년 1월 15일 종이책상
 termist@yonsei.ac.kr / www.yonsei.ac.kr-system

수업중 하시는 성폭력적 발언들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신고하러
feminist@yonsei.ac.kr

성폭력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만들기

수업시간에 듣게 되는 불쾌한 얘기들...
분위기를 좋게 한다며, 또는 수업 이해를 돕는다며,
혹은 아무 상관없이 내뱉는 말들...

여성은 집에나 있어야 한다나,
이차피 '저절' 이나 갈 여학생이 정전 놀아나서 걱정이라나,
여성의 특장 신체 부위에 대한 '불편하게' 노골적인 얘기들...
심지어 교재가 비싸면 남학생들은 막노동하고,
여학생들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몸을 팔라는 이야기까지...

강단에 선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생이기에 그냥 웃어넘기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벌어지는 성차별적이거나 성폭력적인 발언들에 대한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5월 22일 (목)에 하고자 합니다.

수업중에 듣게 되는 이러한 불쾌한 발언들에 대한
사례 신고를 받습니다.

- 사례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몇 년도 몇 학기 어떤 수업이었는데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메일 feminist@yonsei.ac.kr과 언니네(www.unninet.co.kr)의 연세 교수 성폭력 사례집 커뮤니티(익명게시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파/만/파 15대 총여학생회
www.yonsei.ac.kr/~ysfem e-mail : feminist@yonsei.ac.kr ☎ : 2123-3645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호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